

碩士學位論文

# 初等學校 國語教科書의 戲曲指導 研究

指導教授 文 聖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金 宗 範

2000年 8月

# 初等學校 國語教科書의 戲曲指導 研究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논문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金 宗 範



金宗範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0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安  
審査委員 石  
審査委員 文

文 聖 淑



## 初等學校 國語教科書의 戲曲指導 研究

金 宗 範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文 聖 淑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희곡은 연극 상연 활동을 통해서 지도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첫째, 초등학교 희곡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아동들이 희곡을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형태의 희곡 지도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와 국어 교과서의 희곡 관련 부분을 분석하였으며, 교사와 아동을 대상으로 희곡 교육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필자가 구안한 희곡 지도 방법을 학급 아동들에게 1년간 적용해 보았다. 이 연구의 결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6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문학 영역의 학년별 내용 중 희곡 관련 내용이 매우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반복 학습의 원리를 강조한 나머지 학년별 지도 내용이 중복됨으로써 어느 학년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희곡 단원의 목표도 체계성이 부족하였으며 희곡의 특질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단원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경직된 시간 편제는 희곡 학습에서 연극 상연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아동들에게 아동 문학 전반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학 작품을 수록해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3~6학년 국어과 <읽기>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장르별로 조사·분류해 보았다.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은 원리 학습 단계에 제시된 1쪽 정도의 작품을 포함해서 총 136편이었다. 장르별로는 시 57편(41.91%), 동화 56편(41.17%),

\* 본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희곡 18편(13.23%)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희곡 18편 중에 연극으로 상연해 볼 수 있는 완결된 형태의 작품은 9편이었다. 교과서에 수록된 희곡들은 대부분 팬티지를 바탕으로 한 동화극이거나 각색극이었으며, 처음부터 연극 상연을 목적으로 씌어진 창작극은 단 3편에 불과했다. 생활극은 아동들의 일상 생활을 다룬다는 점에서 아동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각색한 동화극 중심으로 수록한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었다.

현장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 65명과 아동 15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반응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사와 아동들이 희곡 학습에서 연극 상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 과정상의 문제점, 연극 관련 자료의 부족, 연극 지도 기술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희곡 교육이 이른 학습에 치우치거나 형식적인 상연 활동에 그치고 있었다.

필자가 직접 구안·적용해 본 희곡 관련 학습 지도 방법은 여러 가지 ‘놀이’와 ‘상연’ 활동을 통한 희곡 지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희곡 지도 방법은 아동들의 흥미와 즐거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성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다양한 상연 활동은 아동들에게 작품을 스스로 이해·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이었다.

최근에 열린교육이 확산되면서 통합 학습 내지는 소집단 학습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극문학 수업은 이 같은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극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국어과 교육 과정이 연극 상연을 통한 희곡 학습을 지향하고, 희곡 지도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때 극문학 교육은 비로소 제 궤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 차 례

## <國文抄錄>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 방법 및 한계	6
II. 교육 과정 분석	8
1.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체계	8
2. 극본 장르의 학습 내용	10
3. 교과서 편제와 시간 운영	15
4. 극본 수록 양상	18
III. 현장 교육 실태와 개선 방향	29
1. 교사의 실태	29
2. 아동의 실태	32
3. 환경적인 면	34
4. 개선 방안	37
IV. 극본 지도의 실제	39
1. 대사 지도	40
2. 표정·몸짓 지도	48
3. 문체 지도	57
4. 상연 지도	63
V. 결론	74
참고문헌	77
Abstract	80
부록	82

## 표 차례

<표-1> 초등 국어과 교육의 체계 모형 .....	9
<표-2> 문학 영역의 내용 체계 .....	10
<표-3> 극본 장르의 내용 .....	12
<표-4> 학년별 극본 단원의 목표 .....	15
<표-5> 연간 수업 시간 수 .....	16
<표-6> 문학 장르별 수록 실태 .....	19
<표-7> 교육 과정 변천에 따른 회곡 수록 실태 .....	20
<표-8> 극본 분류 .....	22
<표-9> 등장 인물의 실태 .....	25
<표-10> 작품별 갈등의 유형 .....	27
<표-11> 아동의 극본 보유 실태 .....	35
<표-12> 학급 문고와 극본 보유 현황 .....	35
<표-13> 극본 보유 수에 따른 학급 실태 .....	36
<표-14> 학급의 교수-학습 자료 실태 .....	36
<표-15> 무연극 상연 과정 .....	52
<표-16> 연극의 상연 과정 .....	64
<표-17> 상연을 위한 소집단 활동 .....	65
<표-18> 극본의 플롯 .....	66
<표-19> 다양한 상연 방법 .....	67
<표-20> 교수-학습 과정안 .....	72

# I. 서론

## 1. 연구 목적

문학 작품은 아동들에게 일상 생활 속에서는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문학적 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해 준다. 또한 문학 작품은 그들에게 잠재해 있는 무한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이를 더욱 풍부하게 해줌은 물론, 아름다운 정서를 길러주고 삶의 가치를 일깨워 준다.

아동들은 발달 단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언행이 즉흥적이다. 혼자 있기보다는 항상 남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늘 무엇인가를 만지작거리면서 움직이는 동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그리고 남의 행동을 쉽게 모방하는가 하면,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남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큰 만족감을 느낀다. 또한 어른들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일에서도 회·노·애·락의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 아동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문학 작품 중에 이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장르가 희곡(drama)이라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시학》에서 연극을 일컬어 “극시는 얘기하는 형식으로서가 아니고 행동하는 인간으로서 보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이래 많은 학자들이 희곡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 왔다. 이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희곡이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씌어진 글’이라는 견해와 ‘희곡 그 자체가 곧 연극’이라는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sup>1)</sup>

---

1) 이광래 외(1983), 「현대희곡론」, (이우출판사, pp.84-85.)에서는 ‘희곡의 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몇몇 논자들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매튜즈(Brander Matthes) : 희곡을 극장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희곡은 극장 속에서 탄생되고 완성된 공연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 놓기 때문이다. …… 위대한 극작가들의 거대한 작품들은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잊혀지기보다는 공연되어 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 보울톤(Marjorie Boulton) : 희곡 작품은 단순히 읽기 위한 문학 작품이 아니다. 진정한 희곡 작품은 3차원의 세계인 것이다. 우리 눈 앞에서 걷고 말하는 문학 작품인 것이다.

이처럼 회극은 연극까지도 포함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 교수-학습 활동 면에서도 여타 문학 장르와는 달리 많은 아동들이 흥미롭게 참여한다. 회극 학습의 한 과정으로써 연극을 상연한다고 가정할 때 아동들은 연극 상연을 위한 준비·연습·상연·평가 등 전 분야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아동들의 이러한 노력 없이 연극을 상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연극은 도덕 교과나 사회 교과 등에서 역할극 내지는 촌극의 형태로 종종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인성 교육이나 생활 지도의 한 방법으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극은 어디까지나 문학의 한 장르로서 문학 교육의 범주에 바탕을 두고 지도되어야 한다. 회극 교육을 문학 교육의 범주에 넣음으로써 그 특성을 살린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행해지는 회극 교육은 배역을 정하여 한두 차례 입체 낭독을 하거나 가끔 상연을 해본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서사(동화·소년소설) 장르를 지도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특히 회극 수업이 언어 능력과 연기력이 뛰어난 소수 아동을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이에 참여하지 못한 아동들에게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회극을 너무 분석적<sup>2)</sup>으로 지도함으로써 아동들은 문학 작품이 갖는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경험하기보다 문학적 지식의 습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학 교육이 지향하는 '작품의 감상 능력, 아름다운 정서, 풍부한 상상력을 기른다.'<sup>3)</sup>고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 
- 아처(W. Archer) : 회극은 첫째,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문학이다. 둘째, 인간의 행동을 표출하는 것이다. 셋째, 가장 객관적 형식의 문학이다. 넷째, 대화가 유일한 표현 방식이다.
  - 윤석산 외(1994), 「문학의 이해」, (태학사, pp.303-304.)에서는 회극의 정의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문자로 씌어진 것'만을 회극으로 보는 협의의 정의와 '문자로 씌어진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공연하는 연극까지 포함한다.'는 광의의 정의가 그것이다. 그리고 "회극은 작가에 의해 씌어지지만, 반드시 극장을 염두에 두며, 공연에 의해 완성된다."는 매튜즈(Brander Matthes)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대부분의 문학 이론가들도 회극을 연극(play)의 개념까지 포괄해서 광의로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덧붙여 기술하고 있다.
- 2) 하청호 외(1994), 「아동문학」, (정민사, p.27.)에서는 오늘날 문학 교육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으로 분석지도를 지적하고 있다. 문학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분야인 만큼 문학 교육에서 목적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분석적 지도는 오히려 실패를 초래하기 쉽다고 기술하고 있다
  - 3) 교육부(1997),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6학년용」,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11.



회곡은 무대에서 상연 과정을 거침으로써 하나의 완전한 작품으로 탄생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회곡 지도 방법도 서사 장르의 지도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할 것이다. “회곡 교재의 학습은 항상 연극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연극은 일종의 놀이로서 많은 아동들이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학습인 것이다.”<sup>4)</sup> 라는 주장처럼 회곡 교육의 최종 목표는 ‘놀이’ 또는 ‘연극’을 통한 문학 교육의 향상에 두어야 한다. 회곡 교육이 진정한 문학 교육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동들로 하여금 ‘회곡’이라는 문학 작품 속에 직접 들어가 마음껏 그 세계를 체험·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곡 교육이 상연 활동을 통한 아동 중심의 학습으로 진행될 때, 아동들은 스스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게 되고, 문학적인 감화를 받게 되며, 문학 작품 속에서 새로운 삶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연극 상연을 전제로 한 회곡 수업을 염두에 둘 때, 회곡을 보는 교사들의 시각이 종전과는 달라져야 하며, 또한 회곡 교육에 필요한 새로운 지도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회곡 지도’에 관한 이 연구는 첫째, 현장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회곡 지도의 문제점을 찾아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둘째, 아동들이 회곡을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형태의 회곡 지도 방법을 개발·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지금까지 아동문학으로서의 회곡에 관한 연구는 아동문학 이론서나 학술지에 발표된 단편적인 논의를 제외한다면 양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초등학교 회곡 지도에 관한 연구는 더욱 그 성과가 미흡해서 미개척 분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최근에 발표된 회곡 관련 논문들 가운데 현장 교육의 측면에서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김명숙<sup>5)</sup>은 192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아동극 변천 과정을 여러 학자들의 이

4) 최운식 외(1988), 「문학 교육론」, 집문당, p.199

5) 김명숙(1990), “국어과 교재의 아동극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론에 입각해서 함축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5차 교육 과정 국어과에 수록된 극본의 성향과 작품의 특성을 <주제> <소재> <형식> 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는 교과서에 수록된 극본들이 너무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작극이 적다는 점과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동극이 지향해야 할 점은 ‘우리 이야기’를 담은 극본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로운 상상 속에 아름다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박재용(6)은 초등학교 문학 교육이 이론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특히 회극 교육에서는 극화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초등학교 회극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 연수, 지도 교재 제작, 특별실 설치, 회극 단원의 충분한 시간 확보, 아동 스스로 회극을 써보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전동회(7)는 1920년대부터 해방 전까지 신문과 잡지에 발표된 아동극들의 성향을 내용·주제·형태·결말 처리 방법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아동극은 각 시대마다 특징이 있으나 대체로 내용 면에서는 <동화극→생활극>으로, 주제 면에서 <지혜→협동>으로, 형태 면에서는 <단막극→동가극>으로, 결말은 <해피 엔드>로 변하여 왔다고 결론 짓고 있다.

홍수정(8)은 제5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국어 교과서의 회극 작품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회극 지도 방법으로 자신이 구안한 ‘대화식 수업’을 소개했다. 그리고 연극 지도를 위한 독자적인 커리큘럼과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질 높은 회극 작품 목록을 교육 과정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희(9)는 제5차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실려 있는 회극 <원슬랑>과 <빌헬름 텔> <봉산탈춤>을 유형에 따라 창작극, 번역극, 전통극 등의 갈래로 나누어 지도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가 제시한 회극 지도 방법은 <자유롭게 작품 읽기→마음껏 상상하기→교사의 적절한 질문→학생들의 발표→서로의 느낌·생각 비교→

6) 박재용(1996), “회극교육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7) 전동회(1990), “한국 근대 아동극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8) 홍수정(1992), “중학교 교육과정과 회극지도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9) 김순희(1994), “회극 지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습 목표 달성>의 과정을 거치는 교수-학습 활동이다. 회극의 갈래와 그 갈래가 갖는 특성을 살린 교사의 적절한 질문은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발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작품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발표·비교해 봄으로써 작품을 바르게 감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용현<sup>10)</sup>은 회극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공동으로 회극을 쓰게 하고 이를 상연토록 하는 사례 연구를 했다. 연구의 핵심은 소집단별로 일정한 기간 동안 <주제 선정→회극 쓰기→연습 →상연> 등의 과제를 제시·해결토록 하는 것이다. 작품의 상연 방법도 소집단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했는데 <춘극>·<창작 탈춤>·<생활극>·<영상극> 등 다양하였다. 이 연구는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도 학생들로 하여금 공동 창작과 상연을 통해 회극을 이해·감상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연구로 생각되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중·고등학교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지식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수업을 시도하려 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김용현의 연구를 제외하면 서사 장르의 학습 방법과 큰 차이가 없거나 ‘연극 상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김명숙과 박재용의 연구는 초등학교 회극 지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했다. 하지만 김명숙은 제5차 교육 과정에 게재된 작품 분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작품을 보다 신중히 선정하여 교과서에 수록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론적 연구에 그쳐 버렸다. 박재용은 설문 조사를 통해 회극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여러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회극 교육의 한 방법으로 ‘극본 쓰기’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필자는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서 제6차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 중 회극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회극 학습과 관련하여 아동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극 상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회극 교육의 한 방법으로 ‘다양한 놀이 또는 상연 활동’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극본<sup>11)</sup> 지도 방법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10) 김용현(1997), “회극 교육에서의 공동 창작 및 연극 공연에 관한 사례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1) 이하 ‘회극’이란 용어를 ‘극본’으로 기술함.

### 3. 연구 방법 및 한계

제1차 교육 과정에서 제6차 교육 과정이 실시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많은 문학 작품들이 수록되어 왔다. 극본도 문학의 한 장르로서 국어 교과서의 일부를 차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극본이 갖는 문학적·교육적 가치를 그만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교육에서 극본은 다른 장르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들은 그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에서 ‘아동문학’<sup>12)</sup>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아동문학이라 해서 그 갈래가 ‘일반문학’의 갈래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엄연히 서정·서사·극 장르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있으며, 수필이나 산문 문학의 한 형태인 생활문과 편지글 등도 다수 실려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면 극본은 3학년 단계에서부터 처음 수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등학교 3~6학년 국어과 <읽기> 교과서에 수록된 극본 중 ‘적용 학습 단계’에 제시된 9편의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극본 교육이 다른 문학 장르의 교육에 비해 뒤진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극본에 대한 <교육 과정의 적절성>·<교사의 자질>·<아동의 관심도>·<문학적인 환경>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 원인을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놀이’ 형태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극본 지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첫째, 극본 지도 목표와 내용이 아동의 발달 단계에<sup>13)</sup> 맞게 체계적으로 제시되

12) 석용원(1998), 「아동문학원론」, (학연사, p.12.)에는 “아동문학(children’s literature)이란 작가가 아동이나 동심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른에게 읽힐 것을 목적으로 창조한 시, 동화, 소설, 희곡 등의 총칭”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13) 아동들은 학년(연령)에 따라 인지 능력이 다르며, 문학적인 성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학습 내용과 학습의 양도 학년 수준에 알맞아야 하고 위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있는지를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것이다.

둘째, 교과서에 수록된 극본을 요인별<sup>14)</sup>로 분석하여 상연 활동에 적합한지를 구명할 것이다.

셋째, 극본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와 교육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극본에 대한 아동들의 흥미와 관심도를 알아 보고, 이를 바탕으로 극본 지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섯째, 희곡 교육과 관련된 환경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섯째, 극본 교육에 도움이 되는 ‘놀이’ 형태의 극본 지도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처음 두 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용 지도서와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게 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지게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의 과제는 학급 아동들에게 직접 구안·적용해 본 극본 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 연구는 제6차 초등학교 교육 과정의 국어과 3~6학년 <읽기> 교과서에 수록된 극본만을 논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현장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제주도 내의 일부 교사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필자가 직접 구안·적용해 본 극본 지도 방법에 대한 검증 과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

14) 극본의 수록 현황, 종류, 주제, 등장 인물, 갈등 유형 등을 의미 함.

## Ⅱ. 교육 과정 분석

### 1.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체계

교육 과정은 “학습자에게 학습 경험을 선정·조직하여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sup>15)</sup>에 해당한다. 이 과정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나 제·개정된 과정을 거치며 변천해 왔다.<sup>16)</sup> 교육의 핵심이 교육 과정에 있다고 볼 때, 그동안 이루어진 교육의 성패는 교육 과정의 적절성 여부에서 찾을 수 있다. 제6차 교육 과정에서 설정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sup>17)</sup>

#### < 전문 >

-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를 소중히 여기게 한다.

#### < 영역별 >

- 가.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표현하고 이해하게 한다.
- 나. 국어에 관한 초보적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바르게 사용한다.
- 다.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아름다운 정서와 풍부한 상상력을 기르게 한다.

제6차 국어과 교육 과정은 제4·5차 교육 과정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언어 사

15)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Ⅰ)」, 서울 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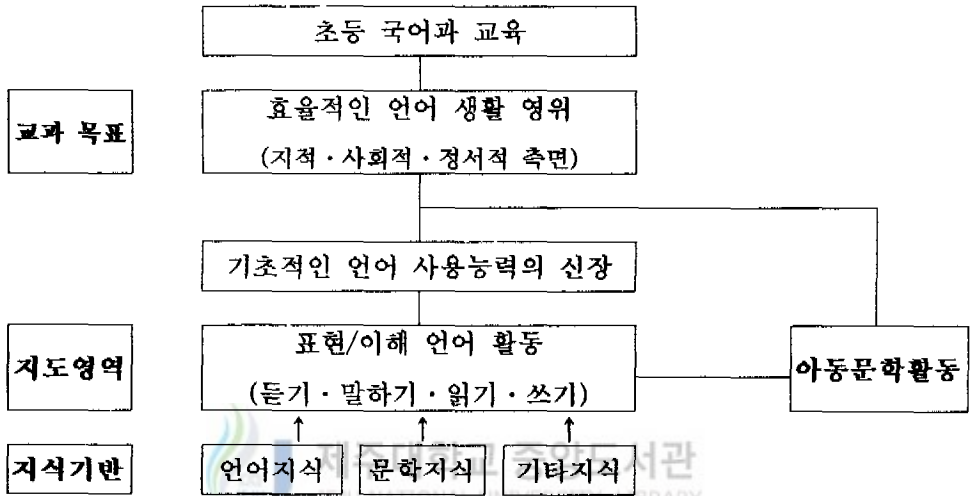
16) 초등학교의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이 변해 왔다. ( )안의 기간은 교육 과정이 실제 교육현장에 시행된 시기를 기점으로 제시한 것이며 제·개정 공포된 시기와는 다를 수 있다.

- 교수 요목 시기(1946~1955) : 국민학교 교수 요목
- 제1차 교육 과정(1955~1964) : 문교부령 제44호 “국민학교 교육 과정”
- 제2차 교육 과정(1964~1973) : 문교부령 제119호 “국민학교 교육 과정”
- 제3차 교육 과정(1973~1982) : 문교부령 제310호 “국민학교 교육 과정”
- 제4차 교육 과정(1982~1989) : 문교부 고시 제442호 “국민학교 교육 과정”
- 제5차 교육 과정(1989~1995) : 문교부 고시 제87-9호 “국민학교 교육 과정”
- 제6차 교육 과정(1995~2000) : 교육부 고시 제 1992-16호 “국민학교 교육 과정”
- 제7차 교육 과정(2000~ ) :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

17) 교육부, 위의 책, p.11.

용 기능을 신장시키는 것을 국어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들은 국어 교육을 통해서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고 언어(언어 지식)를 다루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일상의 삶 속에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언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표-1>과 같다.

<표-1> 초등 국어과 교육의 체계 모형<sup>18)</sup>



제6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특징은 교육 내용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sup>19)</sup>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학년별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평가 목표와 평가 방법을 영역별로 구체화·상세화시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구성 체제 면에서 5차 교육 과정까지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는 <교과 목표, 학년별 목표 및 내용, 평가상의 유의점>의 체제가 <① 성격 ② 목표 ③ 내용(학년별 내용) ④ 방법 ⑤ 평가>의 체제로 변화되었다.

국어과 교육은 <말하기>·<듣기>·<읽기>·<쓰기>·<언어>·<문학> 등 모두 6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각 영역은 <본질>·<원리>·<적용의 실

18) 이재승(1997), 「국어 교육의 원리와 방법」, 도서출판 박이정, p.26.

19) 초등학교 국어 교육은 교과 성격상 언어 사용 기능·언어 지식·문학 등 세 영역 간의 개별성과 상호작용성, 통합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라는 하위 범주를 두었으며, 그 하위 범주에는 3~4개 항목씩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두고 있다. 특히 ‘학년별 교과 목표’가 없는 대신 ‘학년별 내용’을 국어과의 6개 영역마다 5~10개 항목씩 선정·제시하고 있다.<sup>20)</sup>

각론 부분은 ‘단원의 개관’, ‘단원 지도 계획’, ‘단원의 특성 및 차시 지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단원 지도 계획’에서는 ‘관련 단원’과 ‘단원의 목표’, ‘교수·학습 계획’, ‘지도상의 유의점’ 등을 차례대로 제시하고 있다.

## 2. 극본 장르의 학습 내용

국어과 교육의 목표 중에 <문학> 영역의 목표는 ‘다’함으로서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아름다운 정서와 풍부한 상상력을 기르게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같은 목표 아래 문학 영역의 내용은 문학의 본질·이해·감상의 실제 등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범주마다 하위 지도 내용을 두었다. 문학 영역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 문학 영역의 내용 체계

영역	내 용		
문학	<b>1. 문학의 본질</b>	<b>2. 문학 작품의 이해</b>	<b>3. 문학 작품 감상의 실제</b>
	(1) 문학의 중요성 (2) 문학의 기능	(1) 작품과의 친화 (2) 작품의 구성 요소 (3) 작품 세계의 이해	(1) 동화 및 이야기(소설) 감상 (2) 동시(시) 감상 (3) 극본(희곡) 감상 (4) 문학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는 태도

국어과 교육 과정은 문학 영역의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학년별 내용을 4~7개

20) 학년별 내용은 아동들의 언어 발달 단계, 심리적 원리, 반복 심화의 원리를 고려하여 위계화하였다. (교육부, 앞의 책, p.13 참조.)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부록-1 참조> 문학의 ‘본질’에 대한 내용은 5·6학년에서만 다루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발달 단계상 저학년 아동들에게는 명제적인 지식의 학습보다는 능동적이고 창의적 언어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21)</sup>

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극본은 3학년 교과서에 처음으로 수록되고 있다. 3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은 일면적 사고에서 다면적 사고 양상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점차 사회적 활동을 넓혀 가는 시기에 해당된다. 특히 아동들의 문학적 취향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우화기>에서 <동화기>로 접어들게 된다.<sup>22)</sup> 이 같은 특성 때문에 3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들이 전보다 스토리도 길어지고 조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본다.<sup>23)</sup> 3학년 교과서에 극본을 처음 수록한 것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극본과 관련된 학년별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극본을 접하는 3학년에서는 아동들로 하여금 등장 인물에 어울리는 어조나 말투로 말해 보는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아동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했던 농시나 동화와는 다른 형태의 글이 있음을 스스로 알게 하고, 등장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심리 상태나 성격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데 있다. 4학년의 내용도 3학년과 큰 차이가 없다.

5·6학년의 내용은 아동들로 하여금 극본의 구성 요소와 주제의 관련성을 알게 하고, 작품을 통해 얻은 체험을 자기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삶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극본에 나타난 중심 갈등과 그 원인 및 해결 과정을 찾도록 함으로써 극본이 갈등의 문학임을 아동 스스로 알게 하고 있다.

<표-3>은 문학 영역의 학년별 내용 중 극본 관련 부분을 추출한 것이다.

21) 교육부, 앞의 책, p.13.

22) 이재철(1988), 「兒童文學의 理論」, 형설출판사, p.13.

23) 박춘식은 그의 저서 「아동문학의 이론과 실제」에서, “8살에서 10살 정도의 어린이들은 정경이나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한 책이나 팬티지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특히 “생활 경험이나 행동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내용으로 독립심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골라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표-3> 극본 장르의 내용(3~6학년)

학년	내용 범주	문학 영역의 내용(극본 관련)
3	본질	제시되지 않음
	이해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본에 나오는 등장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등장 인물에 어울리는 어조나 말투로 말한다.</li> <li>□ 문학 작품에서 얻은 교훈이나 감동을 즐겨 이야기하려는 태도를 가진다.</li> </ul>
4	본질	○ 제시되지 않음
	이해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본에 나오는 등장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등장 인물이 처한 상황에 어울리는 어조나 말투로 말한다.</li> <li>□ 문학 작품에서 얻은 교훈이나 감동을 글로 쓰는 습관을 가진다.</li> </ul>
5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의 주제에 대하여 말해 보고, 작품에 나오는 인물·사건·배경 등은 주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야 함을 안다.</li> <li>□ 작품의 내용과 자기의 경험을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고, 작품의 세계에는 일상의 세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안다.</li> </ul>
	이해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본에 나타난 갈등을 찾아보고, 중심이 되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한다.</li> <li>□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독서 목록을 작성하는 태도를 가진다.</li> <li>□ 작품 속에 나타난 삶의 다양한 모습을 창조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진다.</li> </ul>
6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의 주제에 대하여 말해 보고, 작품에 나오는 인물·사건·배경 등은 주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야 함을 안다.</li> </ul>
	이해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본에 나타난 갈등을 찾아보고, 중심이 되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한다.</li> <li>□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독서 목록을 작성하는 태도를 가진다.</li> </ul>

※ 참고 : '○'는 극본 지도 내용만을 의미하고, '□'는 시·소설·극본 장르에서 공통으로 지도할 내용을 의미함.

여기서 <문학> 영역과 관련된 학년별 내용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시·소설·극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본질>에 대한 내용과 <감상 및 태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면 극본에 대한 내용이 매우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즉 시와 소설 분야의 내용들은 아동의 발달 단계와 선수 학습을

고려해서 학년별로 2,3개 항목씩 체계성 있게 제시되었다. 반면에 극본 장르의 내용은 선수 학습과 발달 단계를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체계성이 미흡하고 각 학년에 1개 항목씩만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내용이 중복 제시되는 등 거의 학년별로 차별화되지 않고 있다.

교육 과정에 나타난 문학의 <본질>과 <이해·감상> 영역의 학년별 내용에도 문제점이 있다. 먼저 <본질>적인 측면의 문제점은 6학년에 없는 ②번 항목이 5학년에만 들어 있다. “작품의 내용과 자기의 경험을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고, 작품의 세계에는 일상의 세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안다.”는 말은 문학 작품의 허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문학 교육을 통하여 아동들에게 문학 작품은 현실을 반영하되 어디까지나 꾸며낸 이야기이면서도 가치있는 이야기임을 알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본질>적 측면의 ②번 항목을 5학년에만 제시함으로써 6학년에 비해 5학년의 학습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초등학교에서의 극본 교육이 문학의 한 장르로서 ‘맛보기’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해도 선뜻 이해되지 않으며, 아동들의 ‘언어 발달 단계’ 및 ‘심리적 원리’와 ‘반복 심화의 원리’에 입각해서 보아도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다. 따라서 5학년에 제시된 ②번 항목을 6학년에서도 지도하도록 반복 제시하거나 아예 6학년에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질>적 측면**

**- 5학년의 내용 -**

- ①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의 주제에 대하여 말해보고, 작품에 나오는 인물·사건·배경 등은 주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야 함을 안다.
- ② 작품의 내용과 자기의 경험을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고, 작품의 세계에는 일상의 세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안다.

**- 6학년의 내용 -**

- ①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의 주제에 대하여 말해보고, 작품에 나오는 인물·사건·배경 등은 주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야 함을 안다.

이런 현상은 다음에 나오는 <이해·감상>의 측면에서도 드러난다. 여저서는 5학년 내용에만 들어 있는 ③번 항목이 문제가 된다. “작품 속에 나타난 삶의 다양한 모습을 창조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라는 말은 문학 작품에서 느낀 감동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함을 의미한다. 문학 작품에서 느낀 감동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고차원적인 정신 작용이 필요하다. 독자가 문학 작품 속의 주인공이나 등장 인물의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비판적인 사고와 가치 판단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비교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5학년에 제시된 ③번 항목은 심리적·인지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6학년에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해·감상>적 측면**



**- 5학년의 내용-**

- ① 극본에 나타난 갈등을 찾고, 중심이 되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 ②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독서 목록을 작성하는 태도를 가진다.
- ③ 작품 속에 나타난 삶의 다양한 모습을 창조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 6학년의 내용-**

- ① 극본에 나타난 갈등을 찾고, 중심이 되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 ②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독서 목록을 작성하는 태도를 가진다.

다음에는 3~6학년에 수록된 극본의 단원 목표를 살펴보았다.<표-4> 단원 목표도 학년별 내용에 제시한 것과 거의 다를 바 없었다. 물론 단원 목표가 학년별 내용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3·4학년의 단원 목표는 아동들에게 극본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이해·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기보다는 오히려 문학 교육을 통한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제시되고 있다.

또한 5·6학년의 단원 목표도 체계성이 없어 보인다. 목표 진술만을 놓고 볼 때, 단원 목표가 극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동화에서도 인물의 성격이 스토리의 전 국면을 지배하며, 동화에 나타난 스토리 전개 과정과 갈등 양상이 극본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표-4> 학년별 극본 단원 목표

학년	학기	단 원 명	단원 목표
3	1	13. 내가 주인공	· 등장 인물의 말과 행동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극본을 읽을 수 있다.
	2	8. 이야기를 나누어요	· 등장 인물의 성격에 어울리게 극본을 읽을 수 있다. · 등장 인물의 성격을 알아보며 극본을 읽을 수 있다.
4	1	8. 우리가 꾸미는 무대	· 등장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며 극본을 읽을 수 있다.
	2	10. 올바른 판단 15. 또 다른 내가 되어	· 등장 인물의 처한 상황에 맞게 극본을 어떤 말투로 읽어야 할지를 안다. · 글의 내용과 분위기에 어울리게 읽을 수 있다.
5	1	9. 생각들의 만남	· 등장 인물의 갈등을 생각하며 극본을 읽을 수 있다.
	2	9. 흥겨운 놀이 마당	· 사건의 전개 과정을 생각하며 극본을 읽을 수 있다.
6	1	10. 무대 위의 세계	· 어떤 갈등이 있는지 알아보며 극본을 읽을 수 있다.
	2	15. 행동하는 삶	· 중심이 되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알아보며 극본을 읽을 수 있다.

### 3. 교과서 편재와 시간 운영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은 그 특성상 2~3개의 교과서로 나뉘어져 있다. 3·4학년은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3개 교과서로, 5·6학년은 <말하

기·듣기·쓰기>와 <읽기>의 2개 교과서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학년별 주당 수업 시간 수는 3학년 7시간, 4·5·6학년은 각각 6시간으로 되어 있다.

3·4학년은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순서로 각 2~3시간씩<sup>24)</sup> 학습하면 하나의 단원을 마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으며, 5·6학년은 <말하기·듣기·쓰기→읽기> 순서로 각 3시간씩 학습하면 한 단원을 마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교육 과정은 1학기에 18주, 2학기에 16주를 기준으로 연간 34주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이수 시간 수를 정해 놓고 있다. <표-5>

<표-5> 연간 수업 시간수

학 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말·듣 ·쓰기	읽기	말·듣 ·쓰기	읽기
시간수	68	102	68	68	68	68	102	102	102	102
합 계	238			204			204		204	

\* 단위 수업 시간은 40분임.



국어 교과서는 모든 학년이 1학기에 17단원, 2학기에 1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과정에서 정해진 연간 시간 수에 따른다면 매 학기마다 모든 단원을 학습하고도 1주에 해당하는 6시간(3학년은 7시간)씩 남게 된다. 이렇게 남은 시간은 교사의 수업 계획에 의해 학기 중에 수시로 보충·심화 학습을 하거나 현장 학습을 하는데 적절히 이용될 수 있다.

현행 국어과 교육 과정의 <교과서 편제와 시간운영> 부분에서 짚고 넘어 가야 할 점은 교육 과정 운영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각 단위마다 6시간(3학년 7시간)이면 학습을 마치도록 천편일률적으로 편성함으로써 단원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6(7)시간도 <말하기·듣기·쓰기>와 <읽기>교과에 2~3시간씩 고르게 분배·활용토록 편성되어 있다. 이 점은 모든 영역을 고르게 지도할 수 있

24) 3학년인 경우 <말하기·듣기> 2시간, <읽기> 3시간, <쓰기> 2시간을 학습하면 1단원을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단원의 특성을 살린 학습 지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원에 따라 특색 있는 수업을 전개해야 할 교사의 자율성마저도 제한해 버릴 수 있다는 문제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특히 극본 단원에는 아동들로 하여금 연극을 상연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2(3)시간만 주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극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원의 특성이나 기대하는 학습량에 따라 시간 운영을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sup>25)</sup>

지금까지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제6차 교육 과정에 나타난 극본과 관련된 <학년별 내용>과 <단원 목표> 및 <시간 운영> 부분을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종합 정리했다.

첫째, 학년별 지도 내용이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극본을 소홀히 다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학년별 지도 내용을 다른 문학 장르와 같이 자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반복 학습의 원리를 강조한 나머지 학년별 내용이 중복되는 등 어느 학년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학년에 따라 지도 내용을 차별화해서 제시해야 한다.

셋째, 발달 단계에 따른 위계성이 부족하며 단원에 따른 목표 설정에도 차이가 없었다. 학년별, 학기별, 단원별 학습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서 극본 학습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단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시간 편제는 극본 학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단원별 지도 시간이 단원의 특성이나 학습량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다섯째, 극본 교육은 아동들에게 작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어떤 문학 장르보다도 학습 과정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년

---

25) 예컨대, 저학년 때부터 배우는 편지글은 고학년이 되면서 약간씩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편지글은 각종 행사를 통해서 수시로 지도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원과 똑같이 다루어지고 있다.

별 내용이나 단원 목표는 극본의 최종 학습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연극 상연’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sup>26)</sup> 극본 학습에서 상연 활동은 작품을 이해·감상하는 수단으로써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따라서 극본 학습에서는 아동들로 하여금 문학적인 지식의 습득보다는 문학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상연 위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4. 극본 수록 양상

### 1) 장르별 수록 현황

문학 교육에 대한 목표는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아름다운 정서와 풍부한 상상력을 기르게 한다.’<sup>27)</sup>고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학 작품이란 아마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학 작품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문학’<sup>28)</sup>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아동들에게 아동문학 전반을 이해·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수록되어야 한다.<sup>29)</sup>

26) 국어과 <읽기> 교재의 극본 단원을 살펴보면, 일부 단원에서 “시간이 있으면 배역을 정하여 연극으로도 꾸며 보자.”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발전·심화 학습을 위한 학습 문제의 제시에 불과하다.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학습에 중점을 두다 보면 연극 상연은 시간 운영상 거의 불가능하다.

27) 교육부, 앞의 책, p.11.

28) 박춘식은 아동문학을 ‘광의로서의 아동문학’과 ‘협의로서의 아동문학’으로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즉 광의로서의 아동문학은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여 이루어진 모든 문학 작품으로서, 창작 작품은 물론 개작과 변안, 전래되어 온 작품까지 다 포함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아동문학의 작가는 성인 작가일 수도 있고, 또 아동 작가일 수도 있으며, 독자 역시 아동은 물론 청소년과 성인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반면에 협의로서의 아동문학은 성인 작가가 아동을 깊이 인식하면서 동심을 바탕으로 창작한 모든 문학 작품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작가는 성인이어야 하며, 독자는 아동은 물론 동심을 가진 성인들까지 포함한다. (앞의 책, pp.28-29 참조.)

29) 아동문학의 갈래는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일반문학의 갈래처럼 시·소설·희곡으로 먼저 나누고, 이에 따른 하위 장르로 시는 동요와 동시로, 소설은 동화와 아동소설로, 희곡은 동극과 아동 시나리오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대략적인 것에 불과하며, 아동문학이 갖는 장르간의 특질에 따라 동요는 다시 ‘전래동요’나 ‘창작동요’와 같이 자세히 분류하고 있다. 장르의 세분 현상은 각기 다른



이같은 전제하에 3~6학년 국어과 <읽기>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장르별로 조사·분류한 결과 <표-6>과 같이 나타났다.

<표-6> 문학 장르별 수록 실태

장르별 학년		시	소설	극본	수필	문학 작품 수
		3	1 학기	7	8	2
	2 학기	6	4	2	·	12
4	1 학기	6	7	2	·	15
	2 학기	6	7	4	·	17
5	1 학기	7	6	2	1	16
	2 학기	6	9	2	·	17
6	1 학기	13	7	2	2	24
	2 학기	6	8	2	2	18
합 계		57(41.91%)	56(41.17%)	18(13.23%)	5(3.67%)	136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은 총 136편이었다. 이들을 장르별로 분류해 본 결과는 시는 57편으로 전체의 41.91%, 동화(소설 포함)는 56편으로 전체의 41.17%를 차지했다. 반면에 극본은 교과서에 수록된 총 136편의 문학 작품 중 18편으로 전체의 13.23%에 불과했다. 이러한 비율은 원리 학습 단계에서 교재로 제시된 1쪽 정도 분량인 작품도 포함한 것이다. 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9편에 불과하므로 극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완결된 형태의 극본은 4학년 2학기에만 2편이 있을 뿐 각 학년·학기마다 1편씩 수록되어 있다. 그 중 3학년 1학기에 나오는 <소년과 어머니>, 4학년 2학기의 <막동이>는 방송극본이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연극을 목적으로 게재된 작품은 단 7편뿐이다.

이 문학 작품들이 모두 <문학> 영역의 학습만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문학 작품들은 국어과 교육 과정의 6개 영역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교재로 수록된 것

장르에서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 국어 교과에 문학 작품들을 여러 장르로 세분하여 수록한 점은 아동들에게 각각의 장르가 갖는 특질에 따라 다양한 작품들을 접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다. 국어 교과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학년마다 1학기에 17단원, 2학기에 15단원을 학습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3~6학년의 단원 수는 총 128개 단원이다. 그 중 <문학> 영역에만 국한된 단원은 24개 단원으로 전체의 18.75%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어 교과서의 성격상 <문학> 영역의 학습은 물론 다른 영역의 학습을 위해서 공통으로 다루도록 된 단원도 24개 단원으로 18.75%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볼 때 문학 관련 단원은 총 48개 단원으로 전체 단원 수의 37.5%가 된다. 이 가운데 극본은 9개 단원이므로 전체 단원 수의 0.07%, 문학 관련 단원 수의 18.75%에 불과했다.

다음 <표-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 과정의 변천에 따른 회곡의 수록 실태를 조사하여 보았다. 1차 교육 과정에서 5차 교육 과정까지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극본은 총 30편이었다. 따라서 6차 교육 과정에 수록된 9편의 극본을 포함하면 총 39편이 된다. 이를 평균으로 따져 본다면 극본은 매 교육 과정마다 6.5편, 학년별로는 1편 정도 수록된 셈이 된다. 그러나 사실상 교육 과정별·학년별 수록 실태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7> 교육 과정 변천에 따른 회곡 수록 실태

교육 과정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합계
작품 수(%)	3(7.69)	3(7.69)	5(12.82)	10(25.64)	9(23.08)	9(23.08)	39(100)

제6차 교육 과정에 이르는 동안 극본이 가장 많이 수록된 시기는 제4차 교육 과정이었다. 4차 교육 과정에서는 10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전체의 25.64%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5차와 6차 교육 과정으로서 각각 9편씩 실려 있다.(23.08%) 그리고 3차에 5편, 2차와 1차 교육 과정에 각 3편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4·5차 교육 과정에서는 모든 학년에 1~2편씩 고르게 수록된 반면, 1차에서는 4학년 이상만 1편씩 수록된 점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6차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록되었던 39편의 작품을 분석해 보면 실제 작품 수는 24편에 불과하였

다. 나머지 15편은 24편중에서 교육 과정의 변화에 따라 그 학년에 재 수록되었거나 학년 간을 오가면서 재 수록되었음을 의미한다.

교육 과정 변천에 따른 극본의 수록 실태를 종합해 볼 때, 극본은 문학의 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문학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4차 교육 과정부터 수록된 작품 수가 약간 증가하였으나 다른 장르에 비해 양·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사나 아동들에게 극본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거나 소홀히 해도 된다는 생각을 초래하는 한 가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2) 극본의 분류

극본은 그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sup>30)</sup> 국어 교육에서 행해지는 연극은 작품을 이해·감상하는 학습의 한 과정이면서 극본 학습의 최종 단계이다. 그 속에는 이미 ‘아동들’이 ‘교실’이라는 장소에서 ‘아동 관객’을 위해 ‘수업 시간’에 상연하는 ‘연극’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자세한 분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표-8>은 교과서에 수록된 극본을 ‘성격에 의한 분류’와 ‘본질에 의한 분류’로 기준을 한정해서 살펴본 것이다.<sup>31)</sup>

30) 이재철(1998), 「아동문학개론」, 서문당, (pp.200-201.)에는 아동극을 <내용에 의한 분류>에 따라 생활극, 동화극, 의인극, 사극, 민화극, 번역극, 각색극, 창작극, 작문극, 학습극, 행사극, 심리극 등 12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31) 이재철의 분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제시한 생활극이니, 동화극이니, 사극이니 하는 것은 극의 성격에 관한 것이며, 창작극이니, 각색극이니, 번역극이니 하는 것은 극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극의 탄생 방법(본질)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이재철의 분류를 참고로하여 ‘성격에 의한 분류’와 ‘본질에 의한 분류’로 그 기준을 설정했다.

- 생활극 : 현실적인 아동의 일상 생활을 내용으로한 리얼리즘연극·사실극·상황극도 이에 내포된다.
- 동화극 : 생활극과 대척적인 것으로, 공상의 세계를 내용으로 한 로맨티시즘 연극.
- 각색극 : 국내의 명작을 드라마 형식으로 옮긴 것.
- 창작극(오리지널 각본극) : 각색극이나 번역·번안극과 대비되는 극.
- 번역극 : 다른 작품의 취향을 자기 생각으로 변형한 것.

<표-8> 극본 분류

학년	학기	작 품 명	성격에 의한 분류		본질에 의한 분류	
			생활극	동화극	창작극	각색극
3	1	· 소년과 어머니		○		○
	2	· 쓴 약 단 약		○		○
4	1	· 브레멘의 악사들		○		○
	2	· 막동이		○		○
		· 시험	○		○	
5	1	· 우리 선생님	○		○	
	2	· 별주부전		○		○
6	1	· 놀부전		○		○
	2	· 어떤 크리스마스		○	○	
합 계			2	7	3	6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분류한 결과 전체 9편의 작품 중 77.78%에 해당하는 7편이 팬티지를 바탕으로 한 동화극이었고, 나머지 2편(22.22%)만이 아동들의 현실 생활을 다룬 생활극이었다. 본질에 따라 분류해 본다면 6편(66.67%)의 작품이 동화나 고전을 극본으로 재구성한 각색극이었다. 처음부터 연극을 목적으로 씌어진 창작극은 단 3편(33.33%)에 불과했다.

생활극은 아동들의 일상 생활을 다룬다는 점에서 아동들에게 친근감 주며 재미 있게 학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동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전래 동화를 각색한 동화극 중심으로 수록했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다만 6학년 1학기에 나오는 <놀부전>은 교육 과정이 변천해 오는 동안 극본이 아닌 소설 형식으로 꾸준히 게재되어 오다가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마당극 형태로 바뀌어 게재됨으로써 색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동물을 의인화한 동화극은 그럴 듯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의상·소품·분장 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준비 과정이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극을 생략해 버리거나 또는 대충 지나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화극인 <별주부전>이나 <놀부전>은 우리 고전을 연극으로 꾸며 본다는 데서는

그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이 작품들은 대부분 책이나 TV 또는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들어 온 작품들서 아동들에게 큰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극본들이 대부분 각색한 동화극이라는 점을 달리 해석하면, 우리 나라 아동문학 중에 극 장르에 대한 관심이 시나 소설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극본이 갖는 교육적 효과와 문학적 위치를 과소 평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sup>32)</sup> 최근에는 다른 교과에서도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할극이나 놀이 학습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국어 교과서에는 아동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참신한 극본들을 더 많이 수록할 필요가 있다.

### 3) 극본의 주제

‘주제’란 작가가 작품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핵심적 ‘의미’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주제라는 말 대신 작품에 나타난 지은이의 ‘중심생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교과서에 실린 극본의 주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문학 작품을 선정·수록하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에 따른 그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래의 교육 과정에 실렸던 문학 작품들처럼 주제면에서 권선징악이나 계몽적인 것 등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더라도 몇몇 분야로 한정되어 있다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교과서의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제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극본의 주제는 아동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길러주는 동시에 가족간의 사랑, 좋은 인간 관계, 지혜와 용기, 꿈과 희망 등 교육적 가치를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교과서에 실린 9편의 극본을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32) 이재철은 「아동문학의 이론」에서 “아동문학의 여러 장르 중 가장 뒤떨어지고 부진한 분야가 아동극이다. 세계적으로 로만극과 더불어 동화극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역사도 까마득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고전은 못되더라도 자랑할만한 동화극 한 편을 우리 주변에서 선뜻 내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생활 규범에 대한 것 : 효도, 공경, 사랑, 우애, 보은, 순종 등  
 둘째, 사회 규범에 관한 것 : 협동, 봉사, 우정, 공동체 의식 등  
 셋째,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 것 : 꿈, 모험, 지혜, 순진함 등

회곡의 주제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감사, 부모의 사랑, 형제간의 우애 등을 다룬 작품이 많았다. 그 다음은 동심을 이야기한 것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모험이나 지혜, 순진함 등을 다루고 있었다. 우리 고전을 개작한 <별주부전>이나 <놀부전>을 제외하면 주제가 복합적인 점이 특징이었다. 대체로 3·4학년 에 수록된 작품들은 주제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반면, 5·6학년에 수록된 작품들은 극본을 이해한 후에야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6학년 2학기에 나오는 <어떤 크리스마스>는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적인 현대 사회를 풍자한 작품으로 순진함(동심)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주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주제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 가는 오늘날 아동들에게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문학적 가치가 있어 보인다.

주제와 극본 제목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살펴보았다. 3학년에 수록된 <소년과 어머니>와 5학년에 수록된 <우리 선생님>에서 사랑, 효도, 공경, 감사 등을 짐작할 수 있을 뿐 다른 작품에서는 제목에서 주제를 유추해 내기 어려웠다.

극본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주제보다는 단일한 주제가 좋으며 너무 쉽게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주제는 도덕적 덕목이나 교훈을 강조하는 등 너무 목적 의식에 치우쳐서는 안될 것이다.

#### 4) 등장 인물의 실태

극본은 무대 위에서 연극으로 상연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등장 인물이 많으면 상연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러나 국어과 극본 학습에는 많은 아동들이 참

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극본 학습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배우·해설자·연출자로서의 참여, 소품·음악·조명 등 연극을 돕는 보조자로서의 참여, 관객으로서의 참여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아동들은 자기가 직접 배우가 되어 무대 위에서 활동하기를 원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극본에서 등장 인물을 어떤 특정한 틀에 맞게 나누어 유형화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 몇 편 안 되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극본에 따라 제각기 성격이 다르며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본에 등장하는 인물의 수와 성별 구성 비율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 오히려 극본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등장 인물의 수는 극본 학습에 아동들의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으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예컨대, 극본 학습 활동의 일환으로 입체 낭독을 하는 데 참여하지 못해 실망하는 아동들이 의외로 많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극을 상연하는 과정에서 배역을 맡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평을 하는 아동들도 다수 있다. 이런 일들은 극본에 등장하는 인물의 수와 관련된 문제로서 극본을 지도해 본 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3~6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극본에 나오는 인물들을 남성·여성·동물 및 기타로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 총 77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었다. <표-9>

<표-9> 등장 인물의 실태<sup>33)</sup>

구 분	남 성	여 성	동 물	기 타	합 계
비 율	29(37.7%)	13(16.9%)	21(27.3%)	14(18.2%)	77(100%)

등장 인물 중 남성은 29명으로 전체의 37.7%나 차지한 반면, 여성은 13명

33) 등장 인물의 분류 기준은 성별을 우선으로 삼았다. 이는 극본에서 확실하게 남·여를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물을 의인화한 의인극인 경우에도 性을 알 수 있는 것은 구분하였으나 애매한 것은 동물로 분류했다. 그리고 극본에 제시된 인물 중에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출연이 가능한 것은 기타로 분류했다.

- 극본 '막둥이'에서 막둥이, 막둥이 아내 등 → 물고기, 즉 동물이지만 성별을 구분함.
- 극본 '브레멘의 악사'에서 당나귀, 고양이, 개, 닭 → 동물로 분류함.
- 어나운서, 합창단 등 → 기타로 분류함

(16.9%)으로 남성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동물 등장 인물과 기타 등장 인물인 경우 누구나 그 배역을 맡을 수 있다. 따라서, 남녀에 상관없이 출연 가능한 인물은 35명(45.5%)이라 할 수 있다. 성별이 확실하게 제시된 42명의 등장 인물 중에 ‘어린이’는 단 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35명은 모두 성인이었다.

등장 인물의 수록 실태로 볼 때, 아동극에 학습자가 동일시 할 수 있는 배역이 적으면 실제 공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문 연극인이 하는 예술로서의 연극이 아니라 학습의 한 과정으로서의 연극인만큼, 아동이 성인 역할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사실감과 생동감이 떨어져 흥미를 잃기 쉽기 때문이다.<sup>34)</sup>

또한 교과서에 수록된 극본에 남성 등장 인물이 여성 등장 인물에 비해 많다는 것도 재론의 여지가 있다. 이 점은 하찮은 것처럼 지나치기 쉬우나 교육의 기회 균등이란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월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은연 중에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을 선정할 때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5) 갈등의 유형



극본에서의 갈등은 스토리를 전개하는 구실을 한다. 갈등이 강렬하게 나타날수록 연극은 박진감 있게 전개되며 관객들도 긴장과 흥미를 더하게 된다. 극본의 갈등과 관련된 학습 내용은 중심 갈등을 찾아 그 원인·해결의 실마리·역할 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는 것으로 5·6학년에서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갈등은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와 객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sup>35)</sup> 내적 갈등이란 한 인물이 어떤 사

34) 이계철은 “아동극의 등장 인물은 아동이 친근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 주인공이거나 의인화된 동물이어야 한다.”고 했다. (앞의 책, p.210 참조.)

35) 민병욱(1997), 「현대희곡론」, (삼영사, pp.69-70.)에서는 갈등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갈등은 갈등 상대자들(갈등의 주체와 객체)을 기준으로 볼 때 자아와 자아간, 자아와 타자간, 자아와 집단간, 집단과 집단간의 양상으로 유형화된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은 갈등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건을 당하였을 때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등 인물 자신의 심리적 혼란에서 오는 갈등을 의미한다. 반면에 외적 갈등은 등장 인물들의 성격차이에서 생기는 갈등,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인물의 행동이 방해될 때 생기는 갈등, 인물이 가지고 태어난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갈등 등을 말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의 갈등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0> 작품별 갈등의 유형

학년	학기	작 품 명	갈등의 주체	갈등요소	갈등유형	
					내적	외적
3	1	• 소년과 어머니	우리 나라↔중국, 소년↔중국사신(약↔강)	도덕↔제도		○
	2	• 쓴 약 단 약	사슴↔여우, 사슴↔호랑이(쓴 약↔단 약)	정직↔거짓		○
4	1	• 브레멘의 악사들	인간↔동물(현실↔미래)	좌절↔희망		○
	2	• 막둥이	어머니↔막둥이, 막둥이↔노마(부모↔자식)	순종↔비순종		○
		• 시험	우석이 자신, 우석↔우민(형↔아우)	잘함↔못함	○	
5	1	• 우리 선생님	아이들 자신, 아이들↔선생님	성실↔태만	○	
	2	• 별주부전	토끼↔별주부(숲 속↔용궁)	지혜↔우둔		○
6	1	• 놀부전	흥부↔놀부, 아낙↔놀부↔농부(가난↔부자)	선함↔악함		○
	2	• 어떤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검사↔변호사, 산타크로스↔중인 1↔변호사, 중인 2↔검사	순수↔비순수		○

<표-10>에서 보면 대부분의 극본들이 외적 갈등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내적 갈등 구조를 지닌 작품에 비해 외적 갈등 구조를 지닌 작품이 훨씬 활동적이고 아동들에게 더 많은 흥미를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내적 갈등 구조를 지닌 4학년 2학기의 <시험>과 5학년 1학기의 <우리 선생님>이라는 작품은 아동들의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인물들의 심리적 고민 거리를 갈등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사나 연기를 통해 인물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 재미없는 연극으로 흐르기 쉽다.

극본의 재미는 극 속에 나타난 갈등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은 갈등 구조 면에서 아동들로 하여금 먼저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동들은 저학년일수록 생각의 폭이 좁고 단순하기 때문에 인간 내면의 세계를 다룬 작품보다는 외적 갈등 구조를 다룬 작품에서 흥미를 느끼며 주제도 쉽게 찾는다. 따라서, 교과서에 작품을 수록할 때는 작품에 나타난 갈등이 아동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지 그리고 상연 과정에서 아동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인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Ⅲ. 현장 교육 실태와 개선 방향

#### 1. 교사의 실태

아무리 훌륭한 작품도 교육 현장에서 빠르게 지도되지 않는다면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은 교사와 아동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이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때 교육의 효과도 높아진다. 필자는 일선 교육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교사와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반응을 분석하여 보았다.<부록-7 참조>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극본에 대한 관심과 지도 방법, 극본 교육을 위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극본에 대한 관심도는 관람하고 싶은 예술분야, 최근에 연극을 관람한 정도, 가장 관심 있는 문학 장르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감상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장 관람하고 싶은 예술 분야로 연극을 선택한 교사는 28명이었다.(43.1%) 그 다음은 음악회(30.8%), 미술·서예전(16.9%), 무용(9.2%)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10여 년 동안 전문 극단에 의해 공연된 연극을 관람한 정도를 살펴보면, 66.1%에 해당하는 33명의 교사들이 연극을 관람한 적이 있었다. 이 중에서 2회 정도 관람한 교사가 18명(27.6%)으로 가장 많았고, 5회 이상 관람한 교사는 5명(7.7%)이었다. 전혀 연극을 관람하지 않은 교사도 응답자 65명 중 33.9%에 해당하는 22명이나 되었다.

교사들의 가장 관심 있는 문학 장르는 소설이었으며(38.5%), 다음은 수필(24%), 시(20.0%), 극본(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극을 보겠다는 반응은 높게 나타나면서도 연극을 관람해 보지 못한 교사가 많다는 점과 문학 장르 중에 극본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점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극본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으나, 연극 감상의 기회가 음악회나 떠

술·서예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점은 제주도라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다.

극본 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자신감을 다른 문학 장르와 비교하여 보았다. 가장 자신 있게 지도할 수 있다고 응답한 분야는 동화(아동소설 포함)로써 32.3%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시(23.1%), 극본(20.0%), 기타(24.6%)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교사의 흥미와 관심, 교과서의 작품 수록 실태, 문학 교육에 대한 '현장 연구' 등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극본 지도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교사들은 교육 과정상 극본 단원의 수록 정도에<sup>36)</sup> 대해 알맞다고 보는 견해가 69.2%로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도 26.2%나 되었다. 극본 지도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주제와 교훈의 이해(40.0%), 스토리 전개 과정의 이해(27.7%), 연극 공연(26.2%), 극본의 개념·본질 이해(6.2%) 순으로 응답했다. 평소 극본 학습에서 연극 상연 여부에 대한 응답은 가끔 하는 편이다(49.2%), 꼭 하는 편이다(41.5%), 거의 하지 않는다(9.2%)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78.5%), 그저 그렇다(18.5%), 불필요하다(3.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결과로 볼 때, 대부분의 교사들이 연극을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극본을 이해·감상하는 방법으로 연극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극본 학습에서 연극 지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상 시간 부족(56.9%), 연극을 위한 의상과 소품 준비 등 비용 문제(24.6%), 지도 능력의 부족(15.3%), 기타(3.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과정상 시간 부족에 빈도수가 높은 것은 현행 교육 과정이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단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시간 편성이 극본 교육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동들이 연극 상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견해를 직접 기술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전체 65명의

---

36)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3~6학년에 매 학기 마다 1단원씩 수록됨.

설문 대상자 중 75.4%에 해당하는 49명의 교사가 단편적으로나마 응답했다. 이들을 견해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장 인물이 되어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작품의 줄거리·전개 과정·인물의 성격·갈등과 해결 과정·주제와 교훈을 스스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연극 연습 과정에서 협동심과 창의력이 향상되고 양보와 타협의 태도가 길러지는 등 사회성 발달에 도움될 것이다.

셋째, 발표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무대 매너를 익히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등 표현력 신장과 언어 발달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넷째, 무대 위에 섰던 경험은 아동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다. 연극 활동은 실천 지향적인 인간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섯째, 그룹별 연극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상호 비교·평가의 기회를 갖게 된다. 문자를 통한 공부라 아니라 아동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공부가 될 것이다.

연극 학습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는 전문적인 아동문학가의 그것에 비해 손색이 없었다.<sup>37)</sup> 교육 현장에서 국어과 극본 단원의 지도를 위해서 노력할 점이나 개선할 점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도 직접 기술하도록 한 결과 전체의 50.8%에 해당하는 33명이 응답했다. 교사들의 생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극본이 다른 장르에 비해 양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또 연극으로

---

37) 연극 학습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아동문학가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강문희는 연극 연출을 통해서 인물, 구성, 배경, 주제 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하게 되고, 사회성 발달, 언어 구사력, 명료한 표현, 유연성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 (앞의 책, p.222 참조.)
- 최운식은 “문학적 감동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서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희곡 학습은 다른 장르의 학습에 비해 아동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며, 상상적 체험의 확대와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앞의 책, pp.197-200 참조.)

실연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교사용 지도서에 연극 지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어야 하며, 과거의 작품들을 재구성하거나 그대로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을 지양하고 새롭게 창작된 작품을 수록하여야 한다.

둘째, 연극 연출이나 기초 이론을 배울 수 있는 연수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셋째, 연극을 단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쉬운 작품에서부터 수준 높은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영상 자료, 오디오 자료, 도서 등 연극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넷째, 간이 무대와 조명 시설이 갖추어진 특별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특별 지도를 하고 싶어도 교사의 잡무가 너무 많아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교사의 업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교사들에 대한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교사들은 극본 교육에서 <연극 상연>의 중요성과 교육적인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극본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여타 장르에 비해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교육 과정상의 시간 부족, 관련 작품 및 자료의 부족, 지도 기술의 미흡으로 극본 교육이 이론 교육에 치우치거나 형식적인 상연에 그치는 등 심도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 2. 아동의 실태

극본에 대한 아동들의 흥미와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sup>38)</sup> 설문 조사 대상인 158명 중 86.1%에 해당하는 136명의 아동이 설문에 응답했다.

먼저 국어과 학습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야를 조사해 보았다. 극본이 좋다는 아동이 64명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동화(아동소설 포함) 26.5%, 동시 13.9%, 생활문 9.6%, 기타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극본을 좋아하는 이유에

38)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제주도 중심 가에 있는 S학교로서 25학급이며, 6학년은 4 학급 총 158명의 아동이 재학하고 있다.

· 설문지는 내용을 고려하여 집에서 작성하도록 1일간의 여유를 주고 수합했다.

대해서는 직접 그 사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 설문에 응한 아동은 총 136명중 47.1%에 해당하는 64명이었다. 이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이 대략 네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무대에서 연극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활동적이고 재미있다.

둘째, 친구들과 서로 더욱 친해지고 협동심이 생긴다.

셋째, 자기가 직접 연기를 해 봄으로써 등장 인물의 성격은 물론 다른 친구의 성격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극본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극본에 대한 아동들의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극본이 동시나 동화와 다른 점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94.1%에 해당하는 학생이 잘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3학년 때부터 극본을 접하게 된다는 점, 또 극본이 형식이나 문체 면에서 다른 장르와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동들에게 극본 학습에서 연극 상연의 필요성 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77.9%의 아동들이 ‘연극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는 아동들로 하여금 직접 기술하도록 하고 이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첫째, 연극이 재미있다.

둘째, 극본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연극을 하면 실감나고 자신감이 생긴다.

넷째, 자신의 감정이 풍부해지고 말을 잘 할 수 있다.

다섯째, 친구와 친해질 수 있고 작품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들은 매우 다양하게 그 이유를 들고 있다. 특히 극본 학습에서 배우로 출연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40.4%의 아동이 꼭 출연하겠다고 응답했으

며, 5.2%의 아동은 출연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꼭 출연하겠다는 이유로는 ‘연극이 좋고 재미있으므로’, ‘연극 속의 인물이 되어 보고 싶어서’, ‘연극에 소질이 있기 때문’,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 ‘극본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점은 연극의 필요성에 나타난 아동들의 생각과 거의 비슷했다. 그리고 출연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부끄러워서’, ‘소질이 없어서’, ‘학원 시간 때문에’, ‘보는 것이 더 좋아서’ 등 아동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나 사회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연극에 출연했던 경험으로는 ‘두 번 출연한 적이 있다’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연한 적이 전혀 없다’는 아동은 8.9%에 불과했다. 그리고 연극을 할 때 어려웠던 점으로는 ‘대사 외기’가 41.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의상과 소품 준비하기(30.9%), 동작 익히기(17.7%), 무대 꾸미기(9.6%) 순이었다. 설문 분석 결과로 볼 때, 대부분의 아동들은 한 번 이상 연극에 출연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무대 꾸미기’는 교실 연극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크립 활동부서로 선택하고 싶은 예술 분야는 연극부(47.1%), 미술부(33.1%), 합창부(13.9%), 무용부(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극부에 선호도가 높은 것은, 아동들이 활동적이고 많은 친구들과 재미있게 어울릴 수 있는 연극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으로 아동들의 극본 학습에 대한 실태를 정리해 보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아동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연극하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 때문에 극본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아동들은 극본 학습에서 연극 상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연극에 직접 참여해 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연극에 출연해 본 경험이 없다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대사 외우기’나 ‘의상과 소품 준비’를 연극 준비의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다는 것은 극본 교육의 문제점 중 한 단면을 시사하고 있다.

### 3. 환경적인 면

아동들에게 극본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극본 지도에 따르는 여러 가



지 환경적 요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극본 지도에 도움을 주는 환경으로써 아동들에게 극본 관련 도서 보유 상황을 살펴보았다. 극본 학습의 장이라 할 수 있는 학급(교실)에서 학급 문고, TV, VCR, 카세트 라디오 등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조사했다.

먼저, 아동들의 극본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36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총 보유 도서 수와 극본 수를 조사해 보았다.

<표-11> 아동의 극본 보유 실태

N=136명

구 분	도서 보유 실태		극본 보유 실태		비 고
	총 도서 수	1인 평균	총 극본 수	1인 평균	
수 량(권)	15,939	117.2	128	0.94	

\* 극본이 한 권도 없는 아동 61 명

<표-1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동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극본 수는 평균 0.94권에 불과했다. 극본이 없다고 응답한 아동도 61명으로 44.8%를 차지했다. 이 자료로 볼 때 아동들은 국어 교과서에서나 극본을 접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아동들이 극본에 대한 흥미가 부족한 데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동화나 동시에 비해 창작된 극본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본 학습이 학급(교실)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극본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급 문고나 시청각 자료 등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환경적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 이같은 관점에서 학급을 대상으로 학급 문고의 실태와 각종 기자재를 조사하여 보았다. 학급 문고와 극본 보유 수는 <표-12>와 같이 나타났다.<sup>39)</sup>

<표-12> 학급 문고와 극본 보유 현황

N=65학급

구 분	총 보유 도서	학급당 평균	총 극본 수	학급당 평균 극본 수
수 량(권)	7,354	113.1	57	0.8

39) 학급 문고는 보통 교사가 학년초에 필요한 도서를 파악한 후 학교 도서관에서 대여 받거나 아동들을 통한 수집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에는 학급당 평균 113.1권의 도서를 학급 문고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극본은 학급당 0.8권으로 0.7%에 불과했다. 조사한 65개 학급 중에서 학급 문고에 극본을 단 한 권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학급은 24개 학급으로 전체의 36.9%였다. 나머지 63.1%에 해당하는 41개의 학급에는 단 한 권의 극본도 없는 등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3 참조>

<표-13> 극본 보유 수에 따른 학급 실태 N=65학급

구 분	0 권	1 권	2권	3권	4권	합계
학급수	41	7	5	8	4	65
%	63.1	10.8	7.7	12.3	6.1	100.0

극본을 학습하는 데는 시청각 자료 등 여러 가지 교수-학습 매체를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교실 연극을 전제로 하더라도 종합 예술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음악, 미술, 무용, 조명 등의 도움을 받아야 극적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동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극본을 상연해 보려면 이에 필요한 교수-학습 매체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현장의 자료 보유 실태를 조사해 보았다.

<표-14> 학급의 교수-학습 자료 실태 N=65학급

자료명 보유 수	대형TV (소형)	VTR	OHP	녹음기	프로캠	실물화상기	용판	자석철판
N	24(41)	65	65	65	37	15	17	50
%	36.9(33.1)	100.0	100.0	100.0	56.9	23.1	26.1	76.9

<표-14>에서 보면 극본 학습을 위한 자료가 매우 잘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TV 화면을 통해 아동들의 동작을 비춰 볼 수 있는 프로캠도 전체의 56.9%에 해당하는 학급이 보유하고 있다. 교사들이 이러한 교수-학습 매체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다양하면서도 재미있는 극문학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극본 학습을 위한 환경적인 면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이나 학급 모두가 극본을 거의 소유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들이 교과서에 수록된 극본 이외의 작품들을 감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비하여, 극본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등 기자재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갖추어져 있었다. 이는 최근 교육 시책이 교단 지원을 우선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사들이 이러한 교수-학습 매체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다양하면서도 재미있는 극문학 수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개선 방안

현장 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극본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극본을 대하는 교사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극본은 무대 위에서 상연 과정을 거칠 때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완성되므로 국어과 극본 학습도 연극 상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아동들이 연극 상연을 위한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작품을 이해·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극본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단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원별, 영역별 이수 시수를 재조정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sup>40)</sup> 극본 단원에서는 현행 교육 과정이 제시한 대로 <말하기·듣기>·<읽기>·<쓰기>를 나누어 지도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극본 학습에서는 배우로서의 <말하기>, 관객으로서의 <듣기>, 극본을 각색하거나 간단한 역할극 등을 창작해 보는 <쓰기> 활동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사들의 연극 지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연극에 대한 이론 및 실기

---

40) 시간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어과 교육 과정에 있다. 그러므로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학기별 단원 수를 줄이거나 단원의 특성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편성해야 한다.

연수가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과 관련 연수를 보면 예체능 교과 실기 연수, 자연과 실험 연수, 영어 연수, 컴퓨터 연수 등 다양하다. 그러나 국어과 연수는 없다. 국어과 연수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교사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라도 연극 지도에 대한 교사의 안목을 넓혀야 한다.

넷째, 연극을 단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쉬운 작품에서부터 수준 높은 작품까지 고루 갖추어야 하며, 교사들이 연극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극 관련 이론서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점은 교육 정책적 차원에서 자료를 개발·보급하려는 노력이 뒤따를 때 해결할 수 있다.

다섯째, 극본을 이해·감상하는 방법으로 아동들이 전문 연극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체험 학습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최근에는 열린교육이 확산되면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체험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연극 관람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학급 문고를 설치할 때는 아동들에게 극본을 포함한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장르를 고려해야 한다. 아동들에게 학년별 추천 도서 목록이나 교과 관련 도서 목록을 선정·제시할 때도 극문학 분야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같은 문제는 교사의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도서 구입에 따른 비용을 감안한다면 학교 차원에서 노력이 강구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일곱째, 연극을 지도하거나 상연하는 데 필요한 의상, 소품, 오디오 자료, 비디오 자료 등 아동들이 직접 제작하기 힘든 자료와 소품들은 학교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일괄 구입하거나 학년별로 공동 제작하여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최근 취학 아동의 감소로 여유 교실이 생기고 있다. 이 곳에 간이 무대와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특별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필자가 제시한 개선 방안 중에는 현실적으로 당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해 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 Ⅶ. 극본 지도의 실제

문학 교육이란 아동들로 하여금 문학 작품을 대하는 가운데 아동들 스스로 작품을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그 여건을 조성해 주고 안내해 주는 활동이라 생각한다. 문학 작품을 통해 얻게되는 즐거움·교훈·문학적 체험 등은 전적으로 그 작품을 대하는 독자 개개인의 문제로서 장르나 작품 또는 독자의 지적 수준이나 생활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므로 문학 교육은 아동의 수준을 고려하면서 장르 또는 작품에 따라 그 지도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극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들로 하여금 연극을 직접 상연해 보도록 하는 일이다. 아동들은 바로 연극 상연이라는 색다른 학습 활동을 통해서 극본 장르만이 갖는 특성을 이해하게 되고 문학적인 즐거움과 가치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모든 극본을 무대 예술로 상연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동들에게도 여러 가지 부담감을 준다.<sup>41)</sup> 극본 교육이 아동들에게 즐거운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연극과 더불어 아동들의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학습’ 형태를 개발·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장에서는 1999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1년 간 필자가 담임하고 있는 5학년 1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안·적용해 본 극본 지도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sup>42)</sup> 아동들이 극 장르의 학습을 재미있게 하려면 ‘다양한 놀이 형태의 학습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 연구의 주안점을 설정했다.

첫째, 대사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41) 연극 상연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대사 외기, 의상이나 소품 구입에 따른 비용 문제, 학원 수강 등으로 인한 연습 시간 부족 등 다양했다.

42) 5학년 4 개 학급 중에 연구 대상인 5학년 1반은 남학생 17명과 여학생 20명 등 총 37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둘째,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행동을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문체 지도를 통해서 극본의 짜임과 특징을 이해시켜야 한다.

넷째, 학습 과정이 소집단 위주의 다양한 극화 학습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아동들의 생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친구들과 어울려 하는 놀이이다. 놀이에는 승패와는 상관없이 상대방과 어울리는 데 목적이 있는 놀이도 있지만, 서로 어울리는 가운데 정해진 규칙과 경쟁을 통하여 승패를 판가름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도전의식·승부욕·만족감 등을 느끼게 하는 놀이도 많다.

다음에 제시한 극본 관련 학습 방법들은 다양한 놀이 형태를 띠고 있어 아동들의 호응도 높고 극본을 지도하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교사들이 극본을 지도할 때 단원 목표나 학습 내용에 알맞은 지도 방법을 선택·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 1. 대사 지도



대사는 무대 위에서 두 사람 이상의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뜻한다. 대사는 극적 언어라 할만큼 극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sup>43)</sup> 대사는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달하며 극중 인물의 심리 상태나 성격, 인물들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특히 방송극본은 순전히 청각에만 호소하는 문학이므로 대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대사를 지도할 때는 먼저 아동들에게 인물의 성격이나 극의 상황을 이해시켜야 한다. 극의 상황을 이해한 아동들은 그 장면을 상상하며 적절한 발성과 음조로 어울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대사 지도를 통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 주어야 한다. 대사를 지도할 때 너무 이론적인 면에 치우치면 아동들이 흥미를 잃기 쉬우므로 놀이의 성격을 가미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43) 윤병노 외(1983), 「문학개론」, 삼신문화사, p.232.

## 1) 동화 구연을 통한 대사 지도

1·2학년 국어 <읽기> 교과서를 살펴보면 이야기의 길이가 짧으면서도 대화체가 들어 있는 동화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 대화체 동화들은 극본 학습을 위한 선수 학습 과정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저학년 단계에서 동화 체제를 지도할 때는 대화체 문장을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읽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과거에 동화를 이해·감상하는 방법으로 유행했던 ‘동화 구연’<sup>44)</sup>을 극본 지도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동화 구연이란 “들어서, 또는 읽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로 나타내는 행위”<sup>45)</sup>이다. 구연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에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첨삭을 가하여 청자에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전달하게 된다. 동화를 구연하는 과정에서 구연자는 청자의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음조, 표정, 몸짓 등 보조적인 방법을 적절히 써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인형이나 그림과 같은 소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청자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준다.

극본 학습의 한 과정으로 동화를 구연하도록 하는 것은 이야기에 따른 알맞은 언어와 제스처를 요구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아동에게 특히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화 구연이 극본 학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동화를 구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극본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방법만을 소개해 본다.

### (1) 설화체 동화 구연

이 동화 구연 방법은 옛날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언제·어디

---

44) 엄기원(1996) 「동화 구연 교실」, (지경사, pp.192-201.)에서는 구연 동화의 종류를 보통 동화·음악 동화·그림 동화·완구 동화·울동 동화·시능 동화 등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보통 동화를 구연하는 방법으로 설화체 동화 구연·릴레이식 동화 구연·입체 동화 구연·동화시 구연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45) 교육부(1996),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4학년 2학기 국어」,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210.

서·누가·무엇을 어떻게 등의 차례로 구연하는 것이다. 아동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전래 동화를 구연할 수도 있고 교과서에 실린 동화를 구연하는 것도 좋다. 한 사람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연토록 하면 아동이 이야기를 외거나 연습하는데 정신적·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므로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도막으로 나누어 한 사람 당 20~30초 정도씩 분담해서 구연하면 효과적이다. 가령 ‘도깨비 방망이’를 소집단 구성원들로 하여금 구연토록 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 제목 : 도깨비 방망이<sup>46)</sup>

#### <A 아동>

옛날 어느 고을에 형과 아우가 살았습니다. 아우는 착하였으나, 형은 욕심꾸러기였어요. 하루는 아우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무엇이 머리 위로 푹 떨어졌어요.

“어, 이거 개암이구나. 아버님께 갖다 드려야겠군.”

이 때 또 한 개가 푹 떨어졌습니다. 아우는 얼른 주워 주머니 속에 넣었어요.

“이건 어머님께 갖다 드려야지.”

#### <B 아동>

그런데, 이번에는 개암 두 개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옳지, 이걸 형님과 형수님께 드려야겠어.”

아우는 개암을 주머니 속에 넣고는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아우는 지계를 지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곧 캄캄한 밤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비까지 후두둑 떨어졌어요.

#### (중략)

#### <F 아동>

도깨비들은 별떡 일어나 집안을 살살이 뒤졌습니다. 한 도깨비가 대들보 위에 숨어 있는 형을 찾아냈습니다. 형은 마루에 꿰어앉아 두 손을 짹짹 빌었습니다.

46) 「한국 전래동화 V.9」, 웅진출판주식회사, 1988, pp.4-13.



“살려 주십시오, 도깨비님. 난 오늘 여기 처음 왔습니다.”

“이놈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네. 네놈 때문에 우리는 방망이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이놈! 오늘은 혼 좀 나와라.”

도깨비들은 방망이로 형을 실컷 두들겨 뺐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구하러 갔던 형은 방망이는커녕 머리에 커다란 후만 하나 얻어 달고 영영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이처럼 한 개의 이야기를 5~6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소집단에게 과제로 제시하고 1주일 정도의 연습 기간을 준 후에 국어 시간이나 특활 시간 또는 아침 활동 시간 등을 이용하여 구연하게 한다. 과제는 소집단 중심 활동이 되도록 작품 선정에서부터 연습 및 구연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동들에게 맡긴다.

지도할 때 유의할 점은 되도록 짧은 작품을 택하도록 해야하며,<sup>47)</sup> 작품을 구연할 때는 화술(음성 언어)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제스처)도 중요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작품을 발표할 날짜를 소집단 별로 미리 예고해 주어야 한다. 평가할 때에는 나머지 소집단 모두 평가자가 되며 소집단에서 나온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준다. 교사는 나중에 조언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런 활동은 독서 지도에도 이용될 수 있으므로 한 두 차례로 끝내지 말고 월별로 미리 계획을 세워 벽면에 게시하는 등 아동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면서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릴레이식 동화 구연

이것은 마치 육상 운동에서 계주를 하는 것처럼 동화를 구연하는 방법으로써 구연할 순서를 미리 정해 놓고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다음 사람이 그 뒤를 이어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여러 아동들 앞에서 미리 연습한 이야기를 구연하는 것도 좋으나 소집단 구성원들끼리 둘러앉아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것이 더 재미있고 효과적이다.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이어나가는 구연 방법은 많은 아동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전래 동화를 구연토록 하는 것이 좋으며 5·6학년 아동들에게 알맞다.

47) 이야기가 길면 아동들이 외우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며, 실제 구연하는 과정에서 구연하는 아동과 듣는 아동 모두가 지루함을 느낀다.

<방법 1>

제목 : 웃음총<sup>48)</sup>

철수 : 마루에서 낮잠을 자다가,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깨었습니다.

순희 : 그 소리는 바람 소리 같기도 했으나 분명히 바람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영철 :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 보니, 소 한 마리가 입술을 실룩실룩 하더니 이빨을 내 놓고 ‘씨익’ 웃는 것이었습니다.

민지 : 바로 그 때였습니다.

영수 : 무엇인가 빨간 공같이 생긴 것이 쪼르르 소의 가랑이 사이로 빠져 건초더미 쪽으로 달아나는 게 보였습니다.

수아 : 나는 깜짝 놀랐지만, 정신을 차리고 건초더미 쪽으로 가서 그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철수 : 그랬더니 거기에 빨간 조끼를 입은 꼬마 난쟁이가 있었습니다.

순희 : 꼬마 난쟁이는 두 손으로 짹짹 빌며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영철 : 내가 빙그레 웃자, 안심을 했는지 꼬마 난쟁이도 활짝 웃었습니다.

(중략)

철수 : “애, 그거 참 이상한 총이구나, 어디 좀 보자, 응?”

순희 : “이건 웃음총이라는 건데요, 아무리 꼴이 난 사람도 이 총에 한 방 맞으면 웃음이 나오는 총이에요. 재미있죠?”

영철 : “애, 꼬마야. 그거 나 클래?”

민지 : “달라면 드리지요. 그러나 그 총은 아무데서나 막 쏘면 안 돼요.”

영수 : 나는 꼬마 난쟁이와 헤어져 한걸음에 집으로 달려와, 울고 있는 아기에게 한 방 ‘땡’하고 쏘았지요. 그러자 아기는 곧 울음을 그치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방법 2>

제목 : 흥부와 놀부<sup>49)</sup>

철호 :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48) 교육부(1999), 「국어 읽기 5-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54-55.

49) 교육부(1999), 「국어 읽기 4-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44-45.

인규 : 형인 놀부는 아버지가 물려준 많은 재산을 독차지하고, 동생인 흥부를 빈손으로 내쫓았다.

해경 :

석진 : 어느 봄날 재비 한 쌍이 흥부네 처마에 집을 짓고 새끼를 쳤다.

수연 : 그런데 구렁이 한 마리가 재비집에 올라가 새끼 재비를 잡아먹으려 했다.

민범 :

철호 : 이것을 가엾게 여긴 흥부는, 부러진 다리를 싸매어 재비집에 도로 넣어 주었다.

인규 :

해경 :

## 2) 입술 체조<sup>50)</sup>

① 푹푹하고 바르게 소리내어 보기

예) 각낙닥락막박삭악작차각탁파학

교뇨도료묘보쇼요조초교표표효

② 빨리 말해 보기

예) 저 산의 콩각지 칸 콩각지냐, 안 칸 콩각지냐 ?

## 3) 발성 연습

대사를 할 때는 극적 상황이 전제되고 그것에 따른 감정이 동반됨으로써 억양이나 뉘앙스를 어울리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극본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별도로 충분한 발성 연습이 필요하다. 대사를 연습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확실하게 발음하는 훈련, 그리고 호흡 연습과 아울러 뱃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한 음절도 억양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며, 똑같은 문장일지라도 문장을 구성하는 각 단어에 대한 성량의 배분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도 지도해야 한다.

50) 이영준(1986), 「아동극 교실」, 상서각, p.65.

① 장단음의 지도

- |           |               |
|-----------|---------------|
| 예) 눈(사람의) | 눈 : (거울에 내리는) |
| 별(잘못하여)   | 별 : (꿀별)      |
| 밥(낮의 반대)  | 밥 : (먹는)      |

<연습>

- 눈에 눈물이 들어가니 눈물이나 눈물이냐?
- 어젯밤에 먹은 밥은 군밤이나 삶은 밤이냐?
- 비오는 밤에는 비를 만들지 말라.

② 성량의 배분에 따른 의미 차이

- 철수가 집에 가고 있으니? (네게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그런가?)
- 철수가 집에 가고 있으니? (집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지?)
- 철수가 집에 가고 있으니? (집 아닌 다른 곳에 가는 것은 아니지?)
- 철수가 집에 가고 있으니? (수철이가 아니고 철수란 말이지?)



4) 말 잇기 놀이

방송극본에는 보통 글보다 의성어나 의태어가 많이 쓰인다. 이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극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놀이 형식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끝말 이어가기’와 같은 형식으로 지도가 가능하다.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앉아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도 좋으나, 그러면 지적인 면에서 뒤떨어진 아동이 계속 틀리는 경우가 생겨 교육적으로 좋지 않으므로 소집단 사이에 경쟁을 유발하거나 소집단 내 구성원끼리 하는 것도 좋다. 여기서는 소집단끼리 할 수 있는 놀이 방식을 소개해 본다.

- 팀 편성 : 5~6명의 소집단
- 조장 : 1명

- 주제 : 소리 흉내말 이어가기
- 놀이 진행 : 소집단→소집단→소집단
- 교사가 먼저 '참새는 짹짹' 하면서 이어 받을 소집단을 손으로 가리키면 놀이가 시작되고, 순서에 따라 '-은……' 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한다. 이때 조장은 그 집단에서 말할 의성어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

예) A조 : 고양이 는 야옹야옹  
 B조 : 개구리 는 개굴개굴  
 C조 : 파도 가 철썹철썹  
 D조 : 자동차 가 땡땡  
 E조 : 송아지 가 음매음매  
 F조 : 시냇물 은 졸졸

A조 : 호랑이 는 어흥  
 B조 : 까마귀 는 까악까악  
 C조 : 제비 는 지지배배  
 D조 : 강아지 는 멍멍  
 E조 : 학교종 은 땡땡  
 F조 : 뽕꾸기 는 뽕뽕뽕

의태어를 지도할 때도 의성어를 지도하는 방법과 동일한 놀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놀이를 하면서 아동들은 어휘의 쓰임을 알게 되고 그 어휘에 어울리는 동작까지도 상상하게 된다.

## 5) 말 전달 놀이

6~7명의 어린이를 한 줄로 서도록 한 후에 교사가 맨 앞 아동에게 메시지를 종이에 적어 보여준 후 컷속말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놀이로써 마지막 사람은 그 말을 종이에 써서 큰 소리로 말하게 한다. 어느 팀이 정확하게 전달하였는가로 판정을 한다. 이 놀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너무 긴 문장을 제시하면 들리기 쉽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장을 전하도록 해야 하며 반복할 때마다 문장의 길이를 늘려 나간다. 이 놀이는 아동들에게 집중력과 암기력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이 놀이를 통해서 언어의 기능과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말 전달 놀이'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예) 팀 : 소집단별 (6~7명)

교사 : 소집단별로 맨 앞의 A아동에게 문장을 제시함.

A→B→C→D→E→F→G

판정 : 맨 마지막 아동은 전달받은 문장을 공책에 써서 제시함.

교사가 제시한 문장과 가장 가까운 문장을 제시한 팀이 승리.

## 6) 긴 문장 만들기 놀이

이 놀이는 앞에 제시한 ‘말 전달 놀이’와 거의 같은 형식으로 한 팀의 인원 수는 5~6명으로 하는 것이 알맞다. 놀이 방법은 교사가 각 팀에게 임의의 낱말을 주면 다음 학생이 그 낱말에 다른 어휘를 덧붙이며 문장을 길게 늘려 나가는 놀이이다.

예) 바다→푸른 바다→넓고 푸른 바다→넓고 푸른 바다에 갈매기가→( )

이 놀이에서는 문장의 길이와 낱말의 호응관계가 맞게 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같은 시간 내에 활동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과 순발력을 기를 수 있다. 틀린 문장은 나중에 상호 비교하면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게 하고 바른 문장으로 고쳐보도록 지도해야 한다.

## 2. 표정·몸짓 지도

사람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남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흔히 말과 글을 사용한다. 그러나 말과 글로써 모든 상황을 표현할 수는 없다.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표정’이나 ‘몸짓’을 보았을 때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도 있다.<sup>51)</sup> 이치

51) 이충섭 외(1994), 「아동극 연출론」, (도서출판 해성, pp.38-39.)에서는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은 일차적으로 안면의 표정에서 형상화된다고 하였다. 즉 감정은 안면 표정을 기본 연기로 하여 제스처, 몸 동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극 지도와 관련하여 얼굴 표정과 정서의 표현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럼 표정이나 몸짓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될 때 이를 신체 언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신체 언어는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을 나타내 주는 언어 이전의 표현 수단으로 본능적 요소가 강하다.

극본 학습에서도 표정과 몸짓 지도는 대사 지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야 한다.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 하나하나의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하며, 관객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연극에서 언어와 몸짓의 중요성에 대해 황정현은<sup>52)</sup> “언어는 대사를 통해 드러나고 몸짓은 연기를 통해 수행된다. 이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의사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연극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배우들에게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분야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국어과에서의 연극은 극본 학습의 한 과정으로써, 어디까지나 극본이라는 문학 작품을 이해·감상하는 데 목적이 있지 전문 연기자 내지는 연극인을 키우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극본이 갖는 문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들에게 대사에 어울리는 몸짓이나 표정을 지도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극본 학습에서 표정이나 몸짓을 지도할 때도 많은 아동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나 게임 형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체로 아동들은 극본을 낭독

- 놀라움(경이) : 근육의 운동이 잠시 중단되고 심장의 박동이 심해지면서 행동과 사고가 중단된다. 시선의 초점이 대상에 집중되면서 정지된다.
- 무서움(공포) : 방어일 경우에는 두 손 또는 한 손이 대상이 있는 쪽으로 향하며, 도피일 경우에는 몸을 최대한 움추린다. 숨이 막히고 몸이 오그라들며 입은 자기도 모르게 벌어지며 눈은 크게 떠지거나 감기게 된다.
- 분함(분노) : 눈은 크게 타는 듯이 대상물을 감시하며 가슴, 목 등의 근육에 긴장이 가해지며 얼굴은 붉어지고, 몸은 마비적으로 떨게 된다.
- 괴로움(고뇌) : 얼굴은 찌푸러지고 눈을 내리뜨게 되며 입을 다물고 이를 갈게 되며 안색은 창백하고 피부엔 소름이 끼치며 식은 땀이 흐른다.
- 슬픔(비애) : 슬픔의 신체적 표현은 고통을 견디려는 노력이 남아 있으므로 억제, 인내의 표정이 보이는 것이 많다. 밑으로나 옆으로 이마엔 주름살이 그어지고 눈썹은八字 모양으로 되고 주먹은 꼭 쥐거나 손으로 가슴이나 무릎을 껴안는 것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 기쁨(웃음) : 심장의 박동이 높아지고 호흡도 가빠진다. 혈액의 순환이 빨라지며 신체가 상승한다. 머리를 높게 쳐들고 가슴을 펴고 보행하며 몸짓이 부드러워진다. 안면의 불이 상기되고 눈은 영롱해지며 웃음을 유발한다.

52) 황정현(1992), 『한국어 교육』 제8호, 한국어문교육학회, pp.11-13.

하는 것보다 표정을 짓거나 몸짓하는 것을 훨씬 어려워하고 속스러워 한다. 그러므로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 놀이나 게임을 한다면 재미도 있을 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 많은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1) 흉내 전달 놀이

이 놀이는 광의의 언어라고도 할 수 있는 몸짓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특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아동 스스로 알게 해 준다. 특히 아동들로 하여금 상황에 어울리는 몸짓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리하게 함으로써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단순한 의미의 몸짓에서 차츰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몸짓으로 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교사가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재미있으면서도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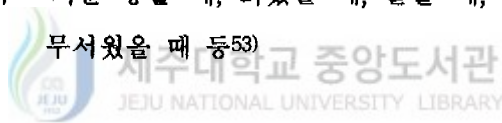
- 팀(소집단) : 5~6명
- 준비물 : 눈가리개 (눈가리개 대신 눈을 감거나, 뒤로 돌아서도록 해도 됨)
- 맨 앞에 선 사람이 어떤 몸짓을 보여주면 그것을 본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몸짓을 해 보인다.
-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눈을 가리거나 뒤로 돌아서 있도록 한다.
- 여러 팀이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상호 비교를 위해서 1~2 팀씩 할 수도 있다.
- 서 있는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 동작이 모두 끝날 때마다 맨 앞에 섰던 사람이 뒤로 가서 서고, 다음 사람이 맨 앞에 오도록 한다.  
A→B→C→D→E→F, B→C→D→E→F→A, C→D→E→F→A→B ...
- 나머지 팀에게는 동작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맞혀 보게 한다.
- 팀별로 상호 비교한 결과를 의논하여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이 놀이를 할 때 처음부터 몸짓을 전적으로 아동에게 맡기면 무의미한 행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몸짓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게 해야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3·4학년에서는 동물 흉내내기와 같이 쉬운 동작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차츰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몸짓을 하도록 하며, 5·6 학년에서는 몸짓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까지도 지어 보게 한다.

짧은 시간에 극본과 관련된 표정이나 몸짓을 지도하려면 교사가 미리 극본을 분석해서 그 극본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동작을 의도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아동들로 하여금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해보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다.

- 예) ① 손 동작 : 바느질하기, 과일 깎기, 채소 썰기, 유리창 닦기, 세수하기. 악수하기, 악기 연주하기 등.
- ② 걷는 동작 : 시냇물 건너기, 계단 오르내리기, 찻잔 들고 걷기,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
- ③ 표정 짓기 : 기분 좋을 때, 화났을 때, 슬플 때, 놀랐을 때, 난처할 때,



## 2) 무언극 놀이

무언극(pantomime)은 간단한 이야기나 극본을 대화 없이 신체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관객들에게 많은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무언극은 혼자서도 할 수 있으나 소그룹으로 할 수도 있다. 특히 소그룹으로 무언극을 하게 되면 소극적인 아동들도 별 어려움 없이 참여하게 된다.

무언극의 제재로는 아동들이 잘 알고 있는 동화나 생활 장면을 택하는 것이 좋으며, 아동 스스로가 공동 창작을 통해 이루어진 작품이 바람직하다. 상연은 간단한 소품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그룹 별로 주제 선택에서 연출·상연에 이르기까지 아동들 스스로 계획하고 활동하도록 지도한다. 무언극을 할 때는 행동만 보고도

53) 심리 상태를 얼굴 표정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할 때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생일에 멋진 선물을 받았다.'는 등 극적 상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독특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나 동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동작을 크게 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배경 음악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스스로 느끼게 한다. 다른 아동(관객)들에게는 상연되고 있는 무언극의 즐거리가 무엇이며, 어떤 아동이 연기를 실감나게 하는지 눈여겨보도록 한다. 극이 끝난 후에 교사의 적절한 발문으로 잘된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찾도록 한다.

무언극은 몸짓을 통해서 이야기의 즐거리나 등장 인물의 성격 또는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주로 표정이나 몸짓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0분이라는 단위 수업 시간에 많은 아동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야 한다. 아동들이 알고 있는 간단한 전래 동화나 생활 장면을 교사가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소집단별 활동 과제로 제시하면 좋다. 그리고 경쾌한 음악을 준비했다가 들려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예) A 그룹 : 토끼와 거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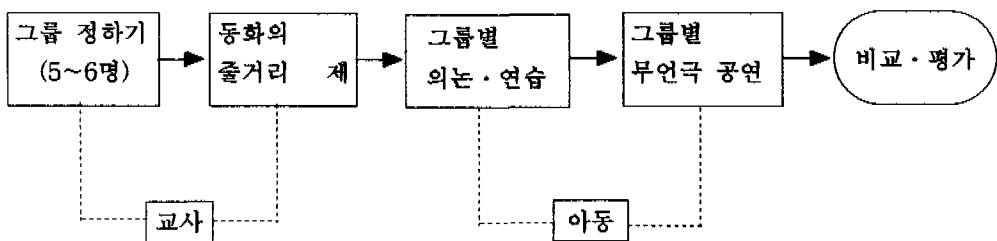
B 그룹 : 욕심 많은 개

C 그룹 : 청개구리

E 그룹 : 금도끼 은도끼

F 그룹 : 개미와 베짚이

<표-15> 무언극 상연 과정



3·4 학년 아동들에게는 전래동화나 이솝우화 등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무언극으로 꾸며 보도록 하고, 고학년은 ‘청소 시간’·‘생일 파티’·‘시험 시간’ 등

생활 주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제재를 간단히 제시해 주고 극화하도록 한다. 연습과 상연 시간을 합쳐도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게 하고, 그 가운데서 표현이 비교적 잘 된 집단을 찾도록 한다.

### 3) 몸짓 알아맞히기

이 놀이는 ‘스무 고개’와 비슷한 형식으로 누가 어떤 상황(일)에 처해 있는지 그 몸짓을 보고 알아맞히는 놀이이다. 1명의 아동이 모든 몸짓을 하여도 되나, 5~6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아침에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했다’고 가정할 때, 이 장면을 한 아동이 몸짓으로 전부 표현할 수도 있으나, 여러 아동이 아침에 있었던 일의 순서에 맞게 몸짓을 차례대로 해 나간다면 많은 아동이 참여하는 재미있는 학습이 될 수 있다.

예) 상황 : 아침에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을 했다.

철수 : 눈을 비비며 일어나 시계를 보며 놀라는 몸짓

순희 : 세수하거나 양치질하는 몸짓

남수 : 책가방을 메고 대문을 여는 몸짓

영숙 : 밥을 먹고 가라고 부르는 몸짓

영철 :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무안해 하는 표정

진수 : 화난 선생님의 표정이나 몸짓

3·4학년에서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상황을 몸짓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5·6학년 아동들은 저학년에 비해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하므로 시간적 흐름에 상관없이 주로 몸짓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이 때 교사는 연기하는 아동들이 몸짓을 실감나게 할수록 칭찬해 주고, 다른 아동(관객)들은 연기하는 아동들의 표정과 몸짓을 본 후 서로 의논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알아맞히도록 한다.

#### 4) 율동 지도

연극은 종합 예술이다. 따라서 대화나 몸 동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노래와 춤도 있어야만 한다. 대사 사이에 간간이 나오는 노래와 춤은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연극에 흥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노래는 기존의 동요곡에 극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들 스스로 개사해 부르게 하면 좋다. 아동들은 개사하는 과정에서 등장 인물의 심리 상태나 처해 있는 상황 등을 스스로 이해하게 된다.

노래(음악)에 잘 어울리는 율동(무용)은 극의 흐름에 하나의 활력소가 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 율동은 간단한 손 동작에서부터 어려운 무용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극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어야 하고 쉽게 익힐 수 있어야 한다. 연극에 필요한 율동을 소집단 과제로 제시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직접 안무해 보도록 하면 아동들도 좋아하고 창의적인 작품도 나오게 된다. 그 예로써 주평 작 <풍선 가게 고양이>를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무대> 합창과 더불어 막이 열리면, 깊은 산 속 웅달샘가이다. 몸에 풍선을 단 나나와 라라, 나무 밑에 죽은 듯이 쓰러져 있다.

<합창>

깊은 산속 나무 밑에  
풍선 이슬 맺혔네  
깊은 산속 웅달샘에  
풍선 일룩 어렸네  
바람 타고 풍선 타고  
달나라 가던  
풍선 가게 고양이가  
떨어졌다네.

54) 이재철, 앞의 책, (pp.222~223.)에서 재인용.

☆ 합창이 끝나자 토끼(1),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며 나타난다.

<노래>

지난 밤 구슬비에

새수한 해님

빨간 연지 찍고

돌아 나셨네.

지난 밤 구슬비에

떡감은 풀들

초록 초록 물감에

함박 젖었네.

토끼(1) : (하늘과 산 속을 뱅 둘러 보고) 아, 눈이 부시다……. 세수하고 아침 먹어야지.

(샘물 쪽으로 가려다가 바위 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나나와 라라를 보고) 아

이 저게 뭐까?

나나 : (꿈틀거리며 끄끄 앓는 목소리로) 라라야.

토끼(1) : 어머, 꿈틀거리다……. (한 발 두 발 가까이 가 보고서) 어머, 호랑이 새끼야.

나나 : (겨우 몸을 일으켜 사방을 돌아보며 눈을 비빈다.) 아나, 여기가 어딜까?

나나 : (라라를 흔들며) 예, 라라야. 정신차려.

이 극본에서 <합창> 부분은 무대 배경이 '숲'이라는 것과 풍선을 타고 가던 고양이 떨어졌다는 '사건'을, 그리고 '아침'이라는 것을 관객들에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합창> 부분을 녹음된 음악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인물을 출연시켜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은 전적으로 연출자에게 달려 있다.

예컨대, <합창> 부분을 많은 아동들로 하여금 나무, 풀, 바위 등 숲 속 친구로 분장케 하여 출연시키고는 '옹달샘' 노래를 부르면서 간단한 율동이나 무용을 하게 한다. 그러면 녹음한 음악을 사용하는 것보다 숲 속 아침의 활기찬 모습을 훨씬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연극에서 음악이 꼭 '옹달샘' 노래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동들로 하여금 어울리는 곡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그에 맞

는 울동을 스스로 창작하게 한 후에 미흡한 부분을 교사가 보충 지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목 : 브레멘의 악사들<sup>55)</sup>

- 때 : 옛날
  - 곳 : 어느 시골
  - 나오는 사람들 : 당나귀, 고양이, 개, 닭, 도둑들(1, 2), 합창단
- 막이 오르면, 뒤로 숲이 보이고, 무대 중앙에 당나귀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

합창 1 :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동물이 지치고 늙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동물들이 늙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합창 2 : 이 이야기는 그런 동물들의 이야기이지요. 그들은 '브레멘의 악사들'입니다.

합창 1 : 옛날에 아주아주 늙은 당나귀가 있었어요.

당나귀 : 히힃, 나는 이제 기운이 없어서 농장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인은 나를 팔아 버리려고 하지. 슬픈 일이지만 어떻게 하겠어?

합창 2 : (속삭이며) 달아나요, 달아나. 달아나서 살아요.

당나귀 :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군. 그렇게 해야겠어.

합창 1 : 그래서 당나귀는 그렇게 했답니다.

합창 2 : 당나귀가 길을 따라 티베티빅 걸어가고 있을 때, 아주 늙은 고양이가 다가왔어요.

고양이 : 야옹. 어이, 당나귀 친구. 어디로 가는 건가?

당나귀 : 나는 브레멘으로 가서 악사가 될 생각이야. 내 목소리는 기막히거든. 브레멘에 가면 틀림없이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을 거야.

고양이 : 나도 같이 갈 수 없을까? 나는 이제 쥐를 잡기에는 너무 늙어 버렸어. 그래서 우리 주인은 나를 내쫓아 버리려 하지.

당나귀 : 좋고말고! 분명히 자네도 목소리가 좋을 테니, 우리는 브레멘에 가서 같이 노래 할 수 있을거야.

고양이 : 야호, 브레멘으로! 야옹!

당나귀 : 히힃!

---

55) 그림 동화집에 나오는 '브레멘의 악사들'을 오름슨이 극본으로 각색한 것이다. 4학년 1학기 <읽기>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합창 1 :** 그렇게 당나귀와 고양이는 길을 따라 걸어갔답니다.

**합창 2 :** 얼마 가지 않아 아주아주 늙은 개를 만났어요.

이 극본은 <브레멘의 악사들>의 발단 부분이다. 여기에 나오는 ‘합창’은 스토리를 계속 전개시킴과 동시에 관객들로 하여금 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합창은 장면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곡에 맞춰 불러야 할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들에게 어떤 곡으로 합창을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같은 합창일지라도 극의 전개 상황에 따라 다른 느낌의 노래가 나오도록 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극 중에서 인물들의 겪고 있는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연극에서 무대 배경은 시골길 또는 숲길이다. 따라서 합창(음악)에 출연하는 아동들은 시골길이나 숲길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도 합창에 어울리는 율동이나 무용을 곁들인다면 생동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되므로 바람직하다. 교사는 음악 선택에서부터 율동(무용)이나 분장에 이르기까지 아동들 스스로 의논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그쳐야 한다.

### 3. 문체 지도

동화가 서술·묘사·대화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면, 극본은 지문과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한다. 극본 속의 대화는 인물들의 심리 상태와 성격, 사건의 전개 과정, 주제 등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도 극본 학습의 과정으로 문체 지도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체 학습을 통해서 아동들은 극본의 구성이나 스토리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게 되며, 인물의 성격도 파악하게 되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완결된 한 편의 극본을 쓰도록 지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문체 지도는 아동들이 잘 알고 있는 동화의 문장을 극본으로 바꾸

거나, 반대로 극본의 일부를 동화 형식으로 바꿔보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학습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아동들은 초보적인 극본 쓰기 능력을 점차적으로 기를 수 있다. 그리고 길이가 짧은 동화를 극본으로 각색하거나 역할극, 촌극을 위한 간단한 극본도 쓸 수 있게 된다.

## 1) 극본을 이야기 글로 고치기

극본을 동화 형식의 이야기 글로 고치거나 반대로 이야기 글을 극본으로 고치는 학습은 아동들에게 예문을 많이 제시해 주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게 하면서 극본의 형식을 확실히 알게 한 후에 이뤄지는 것이 좋다. 아동들은 대체로 극본보다는 동화나 산문 형식의 문장에 훨씬 익숙해 있으므로, 문체 바꾸기 학습은 극본의 일부를 ‘동화 글’로 고쳐보는 활동을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문체 학습은 먼저 다음과 같은 예문을 가능하면 많이 제시해 주면서 글 ㉗와 글 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동 스스로 찾도록 하는 데서 시작한다.

글 ㉗ 돌쇠 : (밀을 내려다보며 손짓을 한다.) 저 울창한 숲 속에 폭우를 내려라.  
 사자 : (구름 자루를 거꾸로 들고 흔들며) 폭우야, 쏟아져라.  
 (폭우 쏟아지는 소리 요란하게 들린다.)

↓ ↓

글 ㉘ 돌쇠는 밀을 손으로 가리키며, 사자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울창한 숲 속에 폭우를 내려라.”  
 명령을 받은 사자는 구름 자루를 거꾸로 들고 흔들었다. 그러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5·6학년 아동들은 독서의 경험도 많고, 3·4학년에서 이미 극본을 학습한 경험이 있으므로 두 글의 차이점을 어렵지 않게 찾아낸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극본의 짜임이나 순서, 문체의 특징 등을 정리해 준다.



글 ㉠

희준 : 선생님.

은식 : 선생님.

선생님 : (반가워하는 목소리로) 너희들 왔구나. 고맙기도 해라.

희준 : 선생님, 좀 어떠세요?

↓

↓

글 ㉡

희준이와 준식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선생님을 불렀다.

“선생님.”

선생님은 희준이와 은식을 매우 반갑게 맞이하면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왔구나. 고맙기도 해라.”

희준이는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병환이 궁금해서 여쭙었다.

“선생님, 좀 어떠세요?”

↓

↓

글 ㉢

희준이와 준식이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선생님을 불렀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들이 찾아온 것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면서 반갑게 맞이했다. 희준이가 먼저 선생님의 안부를 여쭙었다.

극본을 동화로 바꿀 때는 앞의 <보기>처럼 글 ㉠→㉡→㉢의 과정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3·4학년에서는 대화글을 그대로 살리면서 글 ㉠→㉡로 바꾸는 활동을 많이 한다. 5·6학년에서는 글 ㉠→㉡→㉢의 2단계 과정을 거쳐 대화글이 전혀 없는 서술식 문체로 바꾸는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글 ㉡→㉢를 학습할 때는 그 의미가 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문장을 덧붙이거나 표현을 바꾸어도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 2) 이야기 글을 극본으로 고치기

동화를 극본으로 바꿀 때는 먼저 대화글로 나타내야 할 부분과 행동을 설명한 글(지문)로 나타낼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 학습을 할 때는 아동들에게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지도한다.

- ① 등장 인물이 표시되어야 한다.
- ② 행동의 처리 : 지문(바탕글)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대화 글의 처리 : 짧은 대화 글은 그대로 제시해도 무방하나, 긴 대화 글은 함축적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현재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동화를 극본으로 바꾸는 학습도 처음에는 아동들이 저항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 ㉞와 같이 아동들이 극본 형식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대화가 들어 있는 문장을 예문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같은 예문은 전래 동화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므로 교사는 가능한 많은 예문을 자료로 준비해야 한다.

글 ㉞ <소와 나귀>

옛날, 어느 시골 한 농부의 집에 소, 나귀, 토끼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외양간에서 먹이를 먹고 있던 나귀가 옆에 있던 소에게 말했다.  
 “우리 주인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만 죽도록 시켜.”  
 이 말을 들은 소는 나귀를 쳐다보며 타이르듯이 말했다.  
 “그래도 가끔씩 알곡 사료도 주잖아?”  
 그러나 나귀는 소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불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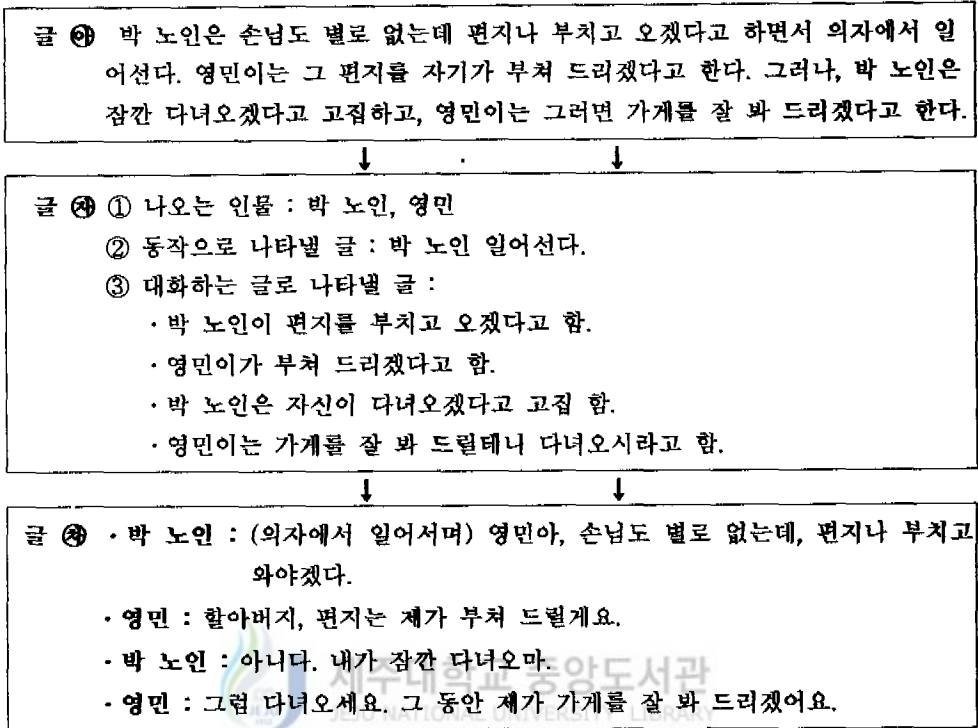
글 ㉟ <소와 나귀>

- 때 : 옛날
- 곳 : 어느 시골
- 나오는 이들 : 소, 나귀, 토끼, 농부.

막이 오르면 외양간에서 소와 나귀가 먹이를 먹고 있다.  
 나귀 : (불만스러운 듯이) 우리 주인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만 죽도록 시켜.  
 소 : (타이르듯이) 그래도 가끔씩 알곡 사료도 주잖아?  
 나귀 : (빈정거리며) 그까짓 알곡 사료가 뭐가 맛있다고 그러니?

글 ㉞에서 글 ㉟로 고치는 활동을 반복해서 지도한다. 아동들이 이 활동에 익숙해지면 글 ㉞와 같이 대화 글이 전혀 없는 서술식 문장을 제시한다. 글 ㉞와 같이 대화글로 나타낼 부분과 지문으로 나타낼 부분을 가려내게 한 후에 글 ㉞처럼 극

본 형식에 맞게 쓰도록 지도한다.



동화를 극본으로 고치는 학습에서 교사가 의도적으로 한 편의 동화를 <발단> · <전개> · <갈등> · <결말> 부분으로 나누어 소집단 과제로 제시하는 것도 좋다. 이 같은 학습을 통하여 아동들은 극본의 플롯을 이해하게 되며, 해결한 과제물을 모으면 한 편의 각색극이 탄생되므로 필요할 때 상연해 볼 수 있다.

### 3) 일기 쓰기 지도를 통한 문체 지도

일기 쓰기는 인성 교육의 한 방법으로써 매우 중요한 교육 활동 중의 한 가지이다. 일기 쓰기의 교육적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글짓기 능력이 길러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날마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날마다 글짓기

를 하는 셈이다. 아동들은 일기를 쓰는 동안 글감 고르기, 주제 정하기, 문장 구성하기 등을 동시에 익히게 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글짓기 실력을 쌓을 수 있다.

초등학교 아동들의 일기를 살펴보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대화체 형식의 문장보다는 산문체 문장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5·6학년 아동들은 논설문, 설명문, 전기문 등 비문학적인 산문체 문장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고학년들은 일기를 쓸 때 일기의 제재인 ‘사건’ 그 자체보다는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일기 쓰기’를 의도적으로 지도한다면 아동들에게 극본의 문체를 지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어느 특정 요일을 정하여 주 1회 정도는 대화체가 들어간 일기를 쓰게 한다. 그날 일기만큼은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대화가 들어가게 쓰도록 지도한다. 대화가 들어간 문장은 반드시 따옴표(“ ”)로 묶도록 한다.



○월 ○일 ○요일 맑음

집에 와 보니 반가운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예원아!”

나는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엄마 몸에 매달렸습니다. 며칠 전 예진이와 내가 병문안 갔을 때는 창백한 얼굴이었는데 집에 돌아온 엄마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는 자꾸 엄마만 붙었습니다.

“이제 다 나왔지요?”

“그럼.”

“이제 병원에 안 가도 되지요?”

“안 가도 되고 말고.”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집은 집 같은 집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나는 숙제를 하다가도 엄마를 보러 일어서고, 밖에 나갔다가도 얼른 달려와 엄마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일기 쓰기는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일기를 검사할 때도 표현이 잘된 부분은 칭찬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는 것이 좋다. 즉, 아동들에게 ‘교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하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가 아동의 일기에 너무 관여하면 아동들은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 왜곡된 일기를 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필자는 대화체 일기를 주1회 이상 아동들에게 쓰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주마다 공개해도 될만한 일기 1편을 선정하여 컴퓨터 글씨로 활자화하고 삽화도 넣어 게시하였다. 처음에는 일기를 게시하는 것에 대한 아동들의 반대도 있었다. 그러나 글짓기 지도와 관련지어 잘된 점을 칭찬하여 주고 학습에 필요한 좋은 자료임을 인식시킴으로써 아동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동들은 앞에 제시한 여러 가지 문체 학습 방법들을 처음에는 다소 어려워한다. 그러나 교사가 아동들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수렴해 주고, 문체 학습을 위한 재미있는 예문을 단계적으로 제시해 주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아동들에게 간단한 역할극이나 촌극을 창작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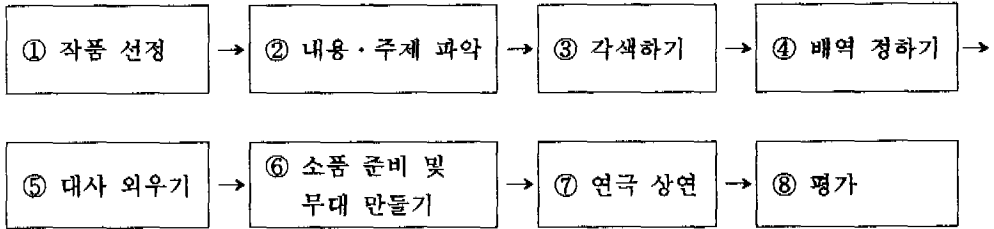
#### 4. 상연 지도

극본 학습에서 연극 상연은 극본의 특질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교재에 수록된 극본을 모두 연극 형태로 상연하기는 곤란하다. 무대 준비라든가 조명장치, 의상이나 소품 준비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종전처럼 입체 낭독에 그친다거나 몇몇 아동들에게 배역을 정해주고 연기해 보는 활동으로 끝나 버린다면, 이 또한 극본학습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모든 학습은 아동들이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때 효과가 크다. 따라서, 교사는 교재에 수록된 극본만이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재미있게 지도해야 한다. 아동들은 극적 체험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며 작품도 이해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극본 수업이 다양한 형태의 극 놀이 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극 놀이 활동으로서는 실

제 연극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연극 형식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 아동들이 직·간접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족하다. 한 편의 극본을 연극으로 상연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sup>56)</sup>

<표-16> 연극의 상연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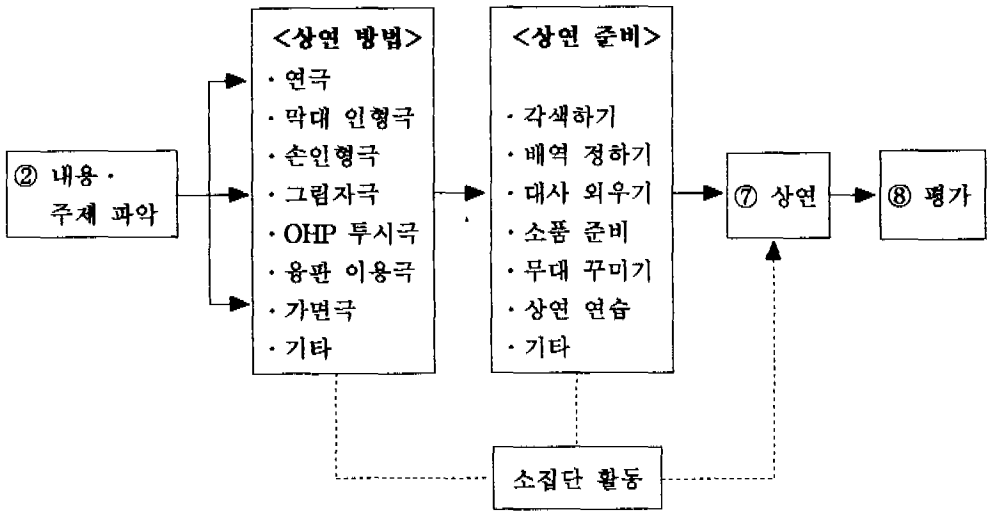
<표-16>에서 작품 선정과 내용·주제 파악 단계는 다른 학급과 큰 차이 없이 학습이 전개된다. 작품이 국어 교과서에 교재로 이미 선정·수록되어 있고, 교육과정에서 내용과 주제를 다루도록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먼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입체 낭독을 시킨 다음 교사의 적절한 발문을 통해서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들에게 등장 인물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난 순서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내용과 주제, 등장 인물의 성격 등은 극화 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에 대한 체험이나 느낌은 전적으로 아동 개인의 문제이므로 강조할 필요는 없다.

소집단 중심의 상연 활동을 염두에 둔다면 '③ 각색하기'부터는 상연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소집단별 상연 방법을 모두 연극으로 할 수도 있으나, 막대 인형극·그림자극·가면극 등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지도하면 많은 아동들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표-17>은 상연 방법의 결정에서부터 상연에 이르기까지 소집단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을 나타낸 것이다. 이 학습 과정에서 아동들은 극본의 특성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고 창의성과 협동심도 기를 수 있다.

56) 강문희 외, 앞의 책, pp.238~240.

<표-17> 상연을 위한 소집단 활동



한 편의 극본으로 모든 소집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을 상연하려면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아동들에게 지루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극 놀이 활동을 위해서는 플롯의 길이나 아동의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작품을 3~5도막으로 나누어 소집단 별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교사가 작품을 플롯에 따라 의도적으로 나누어 소집단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상연토록 하는 활동은 아동들에게 극본의 흐름(플롯)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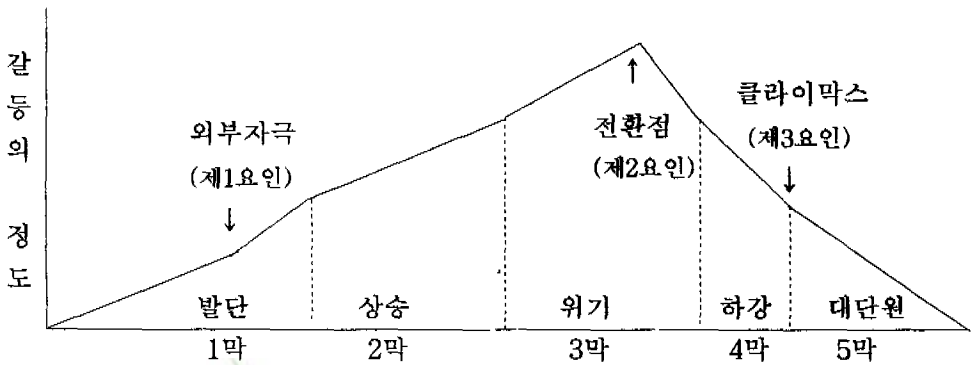
<표-18>은 극본의 플롯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교사의 의도 또는 막(장)에 따라 어느 한 부분만 연극으로 상연해 볼 수도 있고, 전체 아동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소집단별로 상연해 볼 수도 있다.

예컨대, 극본의 <상승> 부분이나 <위기·클라이막스> 부분만을 연극으로 상연하게 한 후, 앞과 뒷부분을 소집단별 활동 과제로 제시한다. 그리고 나서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특색 있는 방법으로 상연토록 한다면 많은 아동들이 참여하게 되고 스스로 극본의 플롯을 이해하게 된다.

한 편의 극본을 플롯에 따라 몇 도막으로 나누어 상연하려면 등장 인물의 수가 소집단 구성원의 수와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소집단에서는 연출자(대표)가 중심이 되어 구성원들과 함께 맡은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필

요에 따라서는 소집단 구성원 수에 맞게 극본을 각색하도록 해야 한다. 소집단 구성원들은 주어진 극본을 서로 읽어보고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각색하기, 배역 정하기, 소품과 의상 준비하기, 연습하기 등 상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교사는 소집단 활동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교육적인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표-18> 극본의 플롯<sup>57)</sup>



다음 <표-19>는 플롯을 3~5 도막으로 나누어 소집단별 과제로 제시한 후에 상연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상연 순서는 플롯에 따라 <A→B→C→D→E>로 하는 것이 극을 이해·감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때에 따라서는 <C→D→A→B→E>, 또는 <D→E→A→B→C>와 같이 순서를 바꾸어서 상연토록 한 후에 아동들로 하여금 극의 순서를 알아보도록 한다. 전자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나 또는 전래동화를 각색한 작품 등 아동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을 상연할 때 좋다. 반면에 후자는 소집단별로 창작극을 상연할 때 이용하면 플롯을 이해하는 데 도움된다.

창작극인 경우 아동들이 작품의 줄거리나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플롯을 바꾸면 어색함을 느끼게 되고 극의 올바른 순서를 아동들 나름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때 교사는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며,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가?’ 또는 ‘어떤 사건이 있었으며, 그 사건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건은 어떻게 끝나게 되었

57) 윤석산 외, 앞의 책, p.325.



나?',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은?' 등 플롯과 관련된 적절한 발문을 함으로써 아동들에게 극본의 플롯을 이해시킨다.

<표-19> 다양한 상연 방법

구분	3부분으로 나누기	4부분으로 나누기	5부분으로 나누기
소집단별 과제	· A집단 : 발단, 상승 · B집단 : 위기, 하강 · C집단 : 대단원	· A집단 : 발단 · B집단 : 상승 · C집단 : 위기, 하강 · D집단 : 대단원	· A집단 : 발단 · B집단 : 상승 · C집단 : 위기 · D집단 : 하강 · E집단 : 대단원
상연 순서	· A→B→C	· A→B→C→D	· A→B→C→D→E
상연	방법 ①	· 한 편의 작품을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상연한다. <예> 연극, 막대 인형극, 손 인형극, 그림자 극, OHP 투시극, 음판 이용극, 가면극, 기타.	
	방법 ②	· 한 편의 작품을 소집단에 따라 방법을 다양하게 상연한다. <예> 연극→막대 인형극→손 인형극→그림자극→OHP 투시극	

상연 방법 면에서 볼 때, 방법 ①은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상연하기 때문에 작품이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다. 또, 소집단 별로 작품을 분담해서 준비하거나 부족한 작품을 상호 보완할 수 있어서 좋다. 방법 ②는 장면마다 상연 방법을 달리 함으로써 항상 새로움 맛을 느낄 수 있고, 소집단 구성원들의 개성이나 창의성이 잘 드러난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든 후자든 학습 활동에 모든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과 소집단 활동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문학 작품의 세계를 스스로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극본이 상연을 전제로 한 문학인 만큼 국어 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교실이 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아동들이 재미있게 상연해 볼 수 있는 극 놀이 방법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막대 인형극을 들 수 있다. 막대 인형극은 입체 또는 평면으로 된 인형의 뒷면에 손잡이 구실을 할 수 있는 막대를 부착하여 극의 진행에 따라 움직이

거나 흔들며 연출하는 방법이다. 막대 인형의 제작 방법은 아동들에게 두꺼운 종이에 등장 인물을 그림으로 직접 그리도록 해서 오려 낸 다음 인형을 움직일 때 사용할 막대를 뒷면에 부착하면 된다. 최근에는 동물이나 사람 모양의 인형들을 가정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수집해서 활용하도록 해도 된다.

등장 인물을 인형으로 만드는 과정도 하나의 종합 예술 활동으로서 소홀히 할 수 없다.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극본을 소집단끼리 잘 읽어보게 한다.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외모·성격 등을 마음껏 상상하게 하고 가장 인상 깊은 모습을 크레파스나 수채물감 등을 이용해서 그리도록 지도한다.

무대는 교사용 책상이나 탁자 또는 공작용 테이블에 테이블 포나 커튼 등을 씌워서 사용할 수 있다. 인형극에서는 배경보다 인형의 움직임과 대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커다란 도화지에 배경 그림을 한두 장면 협동화로 그려서 활용하거나 돌멩이, 풀, 나뭇가지 등을 테이블 위에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극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누가 대사를 하며, 인형 조작은 어떻게 하고, 조명·음악·음향효과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상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어디까지나 소집단의 협동성과 창의성에 달려 있다. 교사는 사전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면 되며 아동들의 활동에 너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손인형극을 들 수 있다. 손인형극은 인형을 손이나 손가락에 끼워 간단하게 조작하면서 극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손인형은 조작 방법에 따라 한손인형(one-hand-puppet)과 두손인형(two-hand-puppet), 손가락인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작이 쉽고 간편하여 활용가치가 높다.

손인형은 양말이나 종이봉투 또는 종이컵 등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다. 등장 인물에 어울리게 머리 모양·눈·코·입 등을 만들되 가능하면 입을 크게 만들어 강조한다. 말할 때는 손인형의 입을 크게 벌려준다. 손목을 굽혀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거나, 손목을 돌려서 인형의 고개를 돌리게 할 수 있다.

한손인형이 인물의 상반신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데 반하여, 두손인형을 사용하면 인물의 전신까지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더욱 효과적이다. 손가락인형은 등장 인물이 비교적 많을 때 활용하면 좋다. 각 손가락마다 독립된 인형을 만들어 끼워서 대사와 함께 손가락을 전후좌우로 움직이며 극을 진행시킨다.

손가락인형은 조금 두꺼운 종이에 인물을 그려 넣고 골무나 반지 모양의 고리를 부착해서 손가락에 끼울 수 있게 만든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지점토나 고무찰흙 등을 이용해서 만들면 좋다. 손인형극을 상연할 무대도 막대 인형극을 상연할 무대처럼 꾸미면 된다. 교사는 사전에 방향만 제시해 주고 상연에 따른 모든 활동을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맡긴다.

셋째로, 그림자 극이 있다. 그림자 극은 전기 스탠드나 OHP 등을 이용하여 빛을 비추어서 인형의 그림자를 막에 생기게 하여 극을 진행시키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문희는 “그림자 극은 등장 인물과 배경의 그림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써, 그림자 극에 사용되는 등장 인물과 배경은 입체 인형보다는 평면 자료가 적절하며, 또한 그림자 극으로 연출하기에 알맞은 작품은 등장 인물의 움직임과 대사는 많으면서도, 배경과 등장 인물의 수는 적은 것이 좋다”<sup>58)</sup>고 서술하고 있다.

그림자 극에 사용할 인물 모양이나 배경을 검정색 도화지에 그려서 올려낸다. 특히 색깔을 나타내고 싶은 부분은 여러 가지 색깔의 셀로판지를 붙이면 좋다. 또한 그림자 극에서는 인형의 머리카락이나 팔다리 부분 그리고 입의 아래턱 부분은 따로 만들어 연결해야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좀 두꺼운 종이를 이용해서 인형을 만들어야 한다. 인형이 완성되면 조작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가는 철사나 투명 아크릴 막대를 붙여야 한다. 조작하는 모습이 그림자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빨대나 셀로판지 같은 것을 사용하면 좋다.

그림자 극의 상연은 극의 분위기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 교실을 어둡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막이나 커튼 등을 이용하여 교실 앞의 측면 유리창만이라도 가려서 주변보다 어둡게 해야 한다.

그림자 극을 연출할 막은 하얀 종이나 천을 이용해서 만든다. 막을 설치할 때는 하얀 천을 천장에서 교실 바닥으로 길게 드리워도 좋고, 커다란 상자나 각목을 이용해서 테를 만든 다음 흰색 천을 부착해서 사용하면 좋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 사용할 것을 생각한다면 각목을 이용해서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자 극은 조작할 때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조작하는 사람이 함께 막에 비치게 되며, 똑같은 인형일지라도 막과의 거리에 따라 그림자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상연 연습을 충분히 하도록 한다.

넷째로, 탈이나 가면을 이용한 극 놀이를 들 수 있다. 등장 인물이 동·식물이거나 어른일 경우 분장이나 소품이 어설프면 생동감이 떨어져서 재미없는 연극이

58) 강문희 외, 앞의 책, pp.294.

되고 만다. 이럴 때 아동들에게 탈이나 가면을 만들어 활용토록 하면 좋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동물 모양의 탈과 가면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으므로 구입해서 활용해도 된다. 그러나 소품을 구입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므로 아동들에게 직접 만들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탈은 출연자의 본래 얼굴 모습을 완전히 가려주기 때문에 사실감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동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탈이 출연자의 눈·코·입 등과 맞지 않으면 출연자 자신은 물론 관객들도 어색함을 느끼게 된다. 탈을 만들 때는 등장 인물의 신체적 특징·나이·신분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야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 극의 전개에 따른 등장 인물의 얼굴 표정이나 심리 상태의 변화를 관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머리에 쓸 수 있는 쓰개 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면극을 상연할 무대도 일반 아동극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교실 연극에서 무대 장치를 완벽하게 꾸미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간이 무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철사와 커튼을 이용해서 간단한 막을 만들고, 교실 앞면에다 배경을 협동화로 크게 그려 붙인다. 그리고 좀 큰 화분을 이용해서 나무나 바위 등을 꾸미면 교실 연극을 위한 기본 무대는 완성된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상연 활동을 하기에 앞서 교사는 출연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등·퇴장 방법과 무대 활용 방법 등을 전체 아동들에게 간단히 지도한다. 기본 무대만 교사와 아동들이 협동하여 만들고 배역 정하기에서부터 연극 상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소집단에게 맡긴다. 소집단에 따라 연기·음악·조명·소품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것은 소집단 구성원들의 창의력과 관련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잘못된 점을 수시로 지도하기보다는 상연 활동이 모두 끝난 후 평가 시간을 통하여 아동들 스스로 장·단점을 찾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교사가 보충해 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연 방법과 관련하여 필자가 5학년 1학기 <9. 생각들의 만남>을 지도했던 사례를 제시해 본다.

이 단원은 갈등 상황이 뚜렷한 두 편의 극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차시에 걸쳐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과 관련하여, 교사용 지도서는 배역을 정하여 재미있게 낭독해 보게 함으로써 극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갈등 상황과 갈등의 해소 과정을 알도록 하는 데 학습의 주안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학습 활동은 <극본 읽기→내용 파악하기→갈등 상황 파악하기→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알기→배역을 정해서 실감나게 낭독하기> 순으로 전개하도록 되어 있다. “극본을 읽을 때는 역할 놀이를 통해 갈등 상황을 직접 느껴 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극 꾸미기는 차시 학습에서 어려울 경우, 학기 초 또는 학기 말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sup>59)</sup>고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언급하고 있다.

필자는 이 단원<sup>60)</sup>의 학습을 위하여 1차시(원리 학습 단계)에서는 <난파선의 사람들>을 미리 녹음해 두었다가 들려줬다. 아동들에게는 녹음 자료를 들으며 인물의 모습, 성격, 장면, 갈등을 상상하도록 하였다. 듣기 활동이 끝난 후에 듣고 난 느낌을 인물의 모습, 성격, 장면, 갈등과 관련지어 발표하도록 하였다. 아동들의 발표 내용이 매우 다양하게 나왔다. 그래서 차시 학습에서 <우리 선생님> 제재와 같이 연극 상연을 통해 알아보기로 아동들과 계획을 세웠다.

<우리 선생님>을 플롯에 따라 다섯 장면으로 나누어 소집단 별 차시 과제로 제시했다. 우리 선생님에는 6명의 인물이 나온다. 그러나 플롯에 따라 3~4명만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집단 구성원 수에 맞게 각색을 하여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리고 상연 방법도 가능하면 소집단별로 다르게 하도록 했다.

극본 학습에 주어진 3차시 중 2~3차시를 통합해서 80분 동안 학습 활동을 전개했다. 원리 학습 단계에 나오는 <난파선의 사람들>은 연극을 꾸며도 5분이면 끝나게 되는데 도입 단계에서 상연도록 했다. 도입 단계의 학습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갈등 상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소집단별로 갈등 상황이 잘 나타나게 꾸미야 함을 강조했다. 아동들이 상연을 준비하는 동안 교단과 커튼을 이용해서 간이 무대를 꾸몄다.

<표-20>은 ‘우리 선생님’이라는 극본을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이다.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것처럼 입체 낭독을 통해서도 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나 필자는 극 장르의 특성을 살린 수업을 하기 위해 아동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연해 보도록 하였다. 이 단원에서는 극본에 나타난 갈등의 원인과 해소 과정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갈등의 원인과 해소 과정은 상연 활동을 하다보면 저절로 알 수 있게 되므로 상연 활동을 통한 작품의 이해에 초점을 두었다.

59)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5-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175.

60) 5학년 1학기 <읽기> 교과서의 ‘9. 생각들의 만남’ 단원에는 1쪽 분량의 ‘난파선의 사람들’과 완결된 형태의 ‘우리 선생님’ 등 두 편의 극본이 실려 있다.

<표-20> 교수-학습 과정안

단 계	학습 형태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 점
		교 사	아 동		
도입	■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 유발</li> <li>· 여러 표정의 조각 그림 제시.</li> <li>· 연극에서 표정이 중요한 까닭은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각 그림을 보며, 표정을 맞춰 본다.</li> <li>- 기쁜 얼굴, 슬픈 얼굴</li> <li>- 화난 얼굴, 놀란 얼굴</li> <li>· 2~3명 발표.</li> <li>- 인물의 처한 상황과 성격 등을 알 수 있음.</li> </ul>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판,</li> <li>· 조각 그림</li> <li>· 조각 그림을 부분적으로 제시하여, 추리하게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학습 상기</li> <li>· 연극에 나타난 갈등 상황 발문</li> <li>- '난파선 사람들'에 나타난 주요 갈등은 ?</li> <li>- 누구와 누구의 갈등</li> <li>- 갈등의 원인은 ?</li> <li>- 극본에 갈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면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집단 : 연극 상연하기</li> <li>- 식량 분배에 따른 갈등</li> <li>- 남자 1과 다른 승객들</li> <li>- 식량 부족, 인물들의 서로 다른 성격 때문.</li> <li>-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li> <li>- 이야기가 더 이상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li> </ul>	5분	
전개	■ 소집 단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문제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H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장 인물의 갈등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보자.</li> <li>○ 배역을 정하여 갈등이 잘 드러나게 연극으로 꾸며보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과정 안내</li> <li>· OHP로 학습과정 안내</li> <li>- 소집단 별로 극본을 플롯에 따라 제시</li> <li>□ 무대 꾸미기</li> <li>- 상연 방법 확인</li> <li>- 간이 무대, 인형극 무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HP 보기 : 소집단 별 활동 과제 파악.</li> <li>□ 소집단별 활동 전개</li> <li>· 극본 읽기 : 내용파악</li> <li>· 과제 분야 읽기</li> <li>- 등장 인물, 성격 알아보기</li> </ul>	3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튼,</li> <li>· 철사,</li> <li>· 나무 화분 등.</li> </ul>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상연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연방법, 각색, 배역 정하기</li> <li>· 소품 준비 및 연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사, 동작 연습하기</li> <li>- 인형극일 경우 대사와 조작 방법 익히기 등</li> </ul> </li> <li>□ 연극 상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롯에 따라 상연 B→C→D→E→F 집단</li> </ul> </li> </ul>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HP로 조명.</li> <li>· 녹음기</li> </ul>
■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의 흐름과 갈등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에 나타난 시간은?</li> <li>- 몇 장면으로 나누어 상연했나?</li> <li>- 상연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li> <li>- 어느 조의 연극에 갈등이 잘 나타났나?</li> <li>- 갈등을 일으킨 인물은 누구였나?</li> <li>-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느 조의 연극에 나타나 있었나?</li> <li>- 갈등이 없었다면?</li> <li>- 갈등이 풀리는 과정은 어느 조에서 연극했나?</li> <li>- 갈등이 풀리게 된 동기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시간, 방과 후</li> <li>· 5장면으로 나누어 상연함.</li> <li>· 연극이 어색함.</li> <li>· 내용을 잘 모름.</li> <li>· 아동들의 생각에 따라 자유롭게 발표</li> <li>· 은식과 최준</li> <li>· C조, 선생님의 병환</li> <li>· 재미없음</li> <li>· 극이 진전되지 않음</li> <li>· F조</li> <li>· 선생님 대으로 병 문안을 감.</li> </ul>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의 시간은 하루 동안임을 인식시킴</li> <li>· 조별로 상연한 것을 플롯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게 함.</li> <li>· 갈등은 인물의 성격과 관계 있음을 지도함.</li> <li>· 평가 기록지</li> </ul>
■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의 성격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장 인물은 누구이며, 인물의 성격은?</li> </ul> </li> <li>□ 연극 상연에 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에서 본받을 점</li> <li>- 연극 상연에 대한 반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장 인물의 성격을 말이나 행동과 관련지어 자유롭게 발표.</li> <li>· 대사, 동작, 소품, 의상, 소집단별 협동성 등 연극 활동 전반에 대해 잘한 점, 잘못된 점 기록.</li> </ul>		

## Ⅵ. 결 론

초등학교에서의 문학 교육은 국어과 교육의 한 분야로서 아동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대하고 감상토록 하는 가운데 문학적인 기초 소양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문학 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문학 장르의 특질과 학습자인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극본 교육은 문학 교육의 한 분야로서 궁극적으로는 <연극 상연> 활동을 통해 지도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극본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그 개선 방안과 지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현행 교육 과정은 극본을 지도하는 데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극본 장르의 학년별 내용과 단원 목표가 단편적으로 진술되고 있다. 반복 학습의 원리만 강조한 나머지 학년별 위계성이 부족하고 지도할 내용도 불분명하다.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문학적 성향이 달라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학년별·단원별 내용과 단원 목표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둘째, 극본 단원의 학습 내용도 등장 인물의 성격이나 갈등 상황 알기, 이야기의 전개 과정 알기 등 서사 장르의 학습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 '극본이 곧 연극'이라는 입장에서 작품을 대할 때 극 장르의 특질을 살린 수업이 가능하며, 아동들도 활자 매체가 아닌 '연극'이라는 생생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을 이해하게 된다. 이 문제는 교육 과정상 극본과 연극이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짐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셋째, 교육 과정의 경직성을 지적할 수 있다. 단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 일률적으로 편성된 시간은 극본 학습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연극 상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현행 학년별·학기별 6,7시간씩 편성된 극본 단원의 시간을 늘리거나 또는 함께 묶어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은 여타 문학 장르에 비해 진부하면서도 양적으로



미흡하다. 이 점은 극본에 대한 아동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이 바뀔 때는 시대 흐름과 사회 변화를 반영한 참신한 작품들을 과감하게 선정·수록해야 할 것이다.

초등교육 현장의 극본 지도 실태와 문제점,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극본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지도 방법이 미흡하여 극본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많은 교사들이 연극에 흥미는 있지만 극본 지도에는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상당수의 교사들은 극본 학습의 주안점을 '연극 상연'보다는 '주제와 교훈의 이해'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현장에서 극본이 그 특성을 살려 지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극본 학습이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학습 자료들은 학년·학년 수를 고려하여 학년 초에 계획·확보되고 있다. 그러나 국어 교과와 관련된 자료 확보 계획은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해도 극본 지도에 필요한 자료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셋째, 교사와 아동 모두가 연극 상연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 교사는 업무 처리에 때문에, 아동들은 각종 학원 수강으로 시달린다는 것은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단계적이면서도 다양한 작품들이 참고 자료로 보급되어야 한다. 또한 극본 지도 방법을 익히기 위한 이론서의 보급과 함께 연수제도나 연극을 위한 교사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들이 극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학급 문고에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교루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극본 학습에 필요한 소품이나 관련 자료들은 활용 가치도 높고 재활용도 가능한 것이므로 계획을 세워 공동 제작·구입하는 등 학교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동들에게는 극본을 감상할 수 있는 체험 학습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주어야 한다. 최근에 각종 문화 행사가 많아지면서 무대극과 관련된 볼거리를 쉽게 접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실 연극이나 학교 연극에 만족하지 말고 전문 극단의 연극이나 각종 학생 예술제 등에서 공연되는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스스로 극본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가 직접 구안·적용해 본 극본 지도 방법의 효과와 한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학습 방법은 여러 가지 놀이와 상연 활동을 통한 회극 지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여러 가지 놀이와 상연 활동은 아동들의 흥미와 즐거움을 유발시켜서 왕성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다양한 문학적 체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아동 스스로 작품을 이해·감상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셋째, 아동들의 언어 사용 능력과 역할극 꾸미기 능력이 향상되어 타 교과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넷째, 소집단 중심의 과제 해결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사회성과 창의성을 길러 줄 수 있었다. 다섯째, 필자가 제시한 학습 지도 방법은 연구의 적용 및 검증을 필자가 맡고 있는 아동들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모든 학교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업은 교사와 아동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재미있게 진행될 때 그 효과도 높다. 따라서 극본 교육도 종래의 학습 방법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에 열린교육이 확산되면서 통합학습 내지는 소집단 중심의 학습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극문학 수업은 이같은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극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국어과 교육 과정이 연극 상연을 통한 회극 학습을 지향하고, 회극 지도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때 문학 교육은 비로소 제 궤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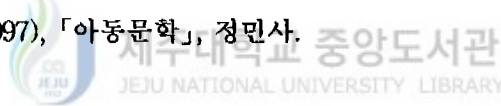
### <자료>

-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국어(읽기)교과서 3~6학년용」,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1998),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3~6학년용」,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1998),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 I, III」,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  
전라남도교육위원회(1984), 「글짓기 지도의 이론과 실제」, 연합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9), 「학교극·아동극의 이론과 실제」, 새교실.  
대한교육연합회(1989), 「동극지도자료집」, 새교실.  
경기도교육청(1997), 「교육을 열다 미래를 열다」, 한국교육출판.

### <저서>

- 강문희·이혜상(1998), 「아동문학 교육」, 학지사.  
김갑순(1990), 「회곡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석만 외(1995), 「간헐 연극에서 열린 연극으로」, 대화출판사.  
김용심(1997), 「선생님 우리 연극해요」, 도서출판 보리.  
로버트 화이트헤드, 「아동문학 교육론」, 신현재 역(1994), 범우사.  
민병욱(1997), 「현대회곡론」, 삼영사.  
박춘식(1985), 「아동문학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석용원(1998), 「아동문학원론」, 학연사.  
오학영(1979), 「회곡론」, 고려원.  
엄기원(1996), 「동화 구연 교실」, 지경사.  
우한용 외(1997), 「문학 교육 과정론」, 삼지원.  
유창근(1997), 「현대 아동문학의 이해」, 동문사.  
윤병노 외(1983), 「문학개론」, 삼신문화사.  
윤석산 외(1994), 「문학의 이해」, 태학사.  
이광래 외(1983), 「현대회곡론」, 이우출판사.

- 이상오(1980), 「연극론」, 원광대학교 출판국.
- 이상현(1991), 「아동문학강의」, 일지사.
- 이재승(1997), 「국어 교육의 원리와 방법」, 도설출판 박이정.
- 이재철(1988), 「아동문학의 이론」, 형설출판사.
- \_\_\_\_\_ (1998), 「아동문학개론」, 서문사.
- 이충섭 외(1994), 「아동극 연출론」, 도서출판 해성.
- 장백일·홍석영(1993), 「문학개설」, 탐구당.
- 정동화(1996), 「국어과 교육론」, 선일문화사.
- 전규태(1991), 「연극의 흐름」, 백문사.
- 조동희(1990), 「아동연극개론」, 범우사.
- 조태일 외(1990), 「문학의 이해」, 시인사.
- 주평 외(1990), 「학교극의 지도서」, 학지사.
- 최운식 외(1988), 「문학 교육론」, 집문당.
- 최지훈(1991), 「한국 현대 아동문학론」, 아동문예.
- 하청호·심후섭(1997), 「아동문학」, 정민사.



#### <논문>

- 김명숙(1990), “국어과 교재의 아동극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문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문홍(1986), “아동극 극본 분석과 동작선에 관한 연구”, 「어문학교육」, 9집, 한국어문교육학회.
- 김순희(1994), “회곡 지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용현(1997), “회곡 교육에서의 공동창작 및 연극공연에 관한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언경(1992), “극본 지도의 내용 분석 및 현장 지도 방안”, 「국어교육논지」, 제 18집, 대구교육대학 국어교육연구회.
- 나종기(1991), “극본분석과 놀이를 통한 연기 지도의 효율성 제고”, 「어문학교육」, 제13집, 한국어문교육학회.

- 남계숙(1987), “극화 학습에 대한 소고”, 「국어교육논지」, 13집, 대구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도금숙(1988), “회곡지도 방식에 대하여”, 「배달말 가르침」, 12집,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 박재용(1996), “회곡교육에 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춘희(1984), “아동문학 장르론”,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방인태(1994), “초등학교 국어과의 연극교육”, 「국어교육」, 83·84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성유진(1997),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동희(1990), “한국 근대 아동극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윤정(1996), “연극놀이의 교육 효과와 적용에 관한 제언”, 「부산교육」, 제280호,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 홍수정(1992), “중학교 교육 과정과 회곡지도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Abstract>

## **A Study on Drama Teaching in Korean Language Textbook of Primary School**

Kim, Jong-Beom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oon, Sung-Sook

On the assumption that 'Drama i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of primary school should teach through presentation of a play', this study has two purposes. One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way about the problems of drama education of primary school. The other is to develop the drama teaching skills with various games that children can learn with interest. To obtain these purposes, I analyzed a teacher's guide and a drama part of Korean language textbook. I carried a questionnaire on the drama education in the subject of teachers and children. Also I have applied my own drama teaching techniques to my students for one year. The results of a study are as follows.

In the 6th curriculum, the subject matters related with drama in the literary field by grade were suggested in fragments. By repeating the teaching matters by grade as a result of emphasizing the principle of repetitive learning, it was not clear that teachers should teach a certain content with emphasis to a certain grade. The objectiveness of drama lesson were lack of systematic organization and it did not show the characteristics of drama. Especially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unflexible time allotment, no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lesson, made the presentation activity of a play in the drama learning difficult.

In this viewpoint, I examined and classified works in 「Reading」 textbook of 3th to 6th grade by genre. The literary works in the textbook were total 136 including works of quantity of 1 page suggested at the step of principle learning. By genre, there were 57 poems(41.9%), 56 fairy tales(41.17%) and 18 dramas(13.23%). Among 18 dramas, 9 dramas as a completed work were possible to be presented a play. Dramas in textbook were fairy tale based on fantasy or adapted drama. A creative drama for presentation of a play was just 3. A living drama which deals with everyday life of children gives children affection and can be learned interestingly. In spite of that, it wa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fact that a textbook included mainly adapted fairy tale which children were already known.

To examine the problems and the actual state in the education field, a questionnaire was carried to 65 teachers and 158 children and analyzed their response. In result, most of teachers and children we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presentation of a play in the drama learning. However, because of curriculum, lack of material related with a play and inadequate skills of play teaching, drama education emphasized theoretical learning or restricted just perfunctory presentation of a play.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related with drama, which I made and applied, put an emphasis on teaching through various 'games' and 'presentation'. As this method causes the interest and pleasure of children, it helps to make active class atmosphere. Especially, various presentation activities had good effect on training children an ability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works.

These days with the spread of open education, integrated learning and small group activity have been emphasizing. Drama class reflects very well these characteristics. Considering drama education, it would have its proper position when more study on drama teaching performs and curriculum directs toward drama learning through presentation of a play.

## 부 록

<부록-1> 학년별 문학 영역의 내용 .....	83
<부록-2> 국어(읽기)과 단원별 장르 분석표(6차 교육 과정) .....	85
<부록-3> 학년별 극본 단원의 목표 .....	88
<부록-4> 학년별 극본 단원의 학습 내용 .....	89
<부록-5> 교육 과정 변천에 따른 극본 수록 목록 .....	91
<부록-6> 설문지 .....	92
<부록-7> 설문지 분석 .....	97



## <부록-1> 학년별 문학 영역의 내용(4~6학년)

학기 학년	1 학 기	2 학 기
4학년	<p>&lt;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야기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개 순서를 말해 보고, 이야기는 처음, 가운데, 끝으로 짜여짐을 안다.</li> <li>(2) 이야기에서 결말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사건을 찾아 보고, 그것이 이야기의 결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말한다.</li> <li>(3) 시의 글감과 주제를 알아보고, 그 표현이 잘된 부분을 찾는다.</li> <li>(4) 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적 요소를 찾아보고, 시의 운율을 살려 낭송한다.</li> <li>(5) 극본에 나오는 등장 인물이 처한 상황에 어울리는 어조나 말투로 말한다.</li> <li>(6) 문학 작품에서 얻은 교훈이나 감동을 글로 쓰는 습관을 갖는다.</li> </ol>	<p>&lt;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gt;</p> <p>* 1 학기와 같음.</p>
5학년	<p>&lt;문학의 본질&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의 주제에 대하여 말해 보고, 작품에 나오는 인물, 사건, 배경 등은 주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야 함을 안다.</li> </ol> <p>&lt;문학의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실제&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이야기에서 사건의 발달과 결말을 확인하고 그것이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 배경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말한다.</li> <li>(3) 이야기에서 인물의 행동 등에 대하여 묘사한 부분을 찾아보고,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적 상태를 추리한다.</li> <li>(4)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이 주는 느낌을 음미해 보고, 시의 분위기를 살려 낭송한다.</li> <li>(5) 좋아하는 시를 암송하고, 그 시를 좋아하는 이유와 시에서 받은 감동을 말한다.</li> <li>(6) 극본에 나타난 갈등을 찾아보고, 중심이 되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한다.</li> <li>(7)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독서 목록을 작성하는 태도를 가진다.</li> </ol>	<p>&lt;문학의 본질&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품의 내용과 자기의 경험을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고, 작품의 세계에는 일상의 세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안다.</li> </ol> <p>&lt;문학의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실제&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이야기 속의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하여 말해 보고 이야기의 주제를 파악한다.</li> <li>(3) 이야기에서 사건의 발달과 결말을 확인하고 그것이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 배경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말한다.</li> <li>(4) 시의 글감과 주제를 알아보고, 그 시의 분위기를 살려 낭송한다.</li> <li>(5) 좋아하는 시를 암송하고, 그 시를 좋아하는 이유와 시에서 받은 감동을 말한다.</li> <li>(6) 극본에 나타난 갈등을 찾아보고, 중심이 되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 대하여 서로 말한다.</li> <li>(7) 작품 속에 나타난 삶의 다양한 모습을 창조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진다.</li> </ol>

6학년	<p><b>&lt;문학의 본질&gt;</b></p> <p>(1)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의 주제에 대하여 말해 보고, 작품에 나오는 인물, 사건, 배경 등은 주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야 함을 안다.</p> <p><b>&lt;문학의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실제&gt;</b></p> <p>(2) 이야기에서 사건의 발단과 결말을 확인하고 그것이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 배경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말한다.</p> <p>(3) 이야기에서 인물의 행동 등에 대하여 묘사한 부분을 찾아보고,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적 상태를 추리한다.</p> <p>(4)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이 주는 느낌을 음미해 보고, 시의 분위기를 살려 낭송한다.</p> <p>(5) 좋아하는 시를 암송하고, 그 시를 좋아하는 이유와 시에서 받은 감동을 말한다.</p> <p>(6) 극본에 나타난 갈등을 찾아보고, 중심이 되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한다.</p> <p>(7)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독서 목록을 작성하는 태도를 가진다.</p>	<p><b>&lt;문학의 본질&gt;</b></p> <p>* 6-1 학기와 같음</p> <p><b>&lt;문학의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실제&gt;</b></p> <p>* 6-1 학기와 같음</p>
-----	---	---

## <부록-2> 국어(읽기)과 단원별 장르 분석표(6차 교육 과정)

### ● 4학년

1 학 기					2 학 기			
단원	단원명	제재	학습 유형	장르별	단원명	제재	학습 유형	장르별
1	빛을 남긴 사람들	토머스 에디슨	원리	전기문	내 생각은 어떠니	영우의 생각	원리	생활문
		유관순	적용			고물 자전거	적용	동화
2	봄 나들이	봄 비	원리	동시	말 따라 생각 따라	좋은 친구를 사귀자	원리	논설문
		개나리 노란 배 외 1	적용			에너지를 아껴 쓰자	적용	
3	이야기 세계	어떤 사고	원리	동화 전래동화	이야기의 짜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원리	동화
		오성과 한음	적용			코스모스 편 언덕	적용	
4	개미처럼 부지런히	국어 사전 찾는 법	원리	설명문 관찰 기록문	우리들의 시	무지개	원리	동시
		개미처럼 부지런히	적용			구름 가는 소리 외	적용	
5	일터를 찾아서	자동차 공장을 찾아서	원리	기록문	알맹이만 찾아 봅시다.	우리의 절그릇	원리	설명문
		컴퓨터의 탄생	적용			습기로 만든 김치	적용	
6	차레를 생각하며	홍부와 놀부	원리	전래동화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아	선녀바위...	원리	기행문
		머리 아픈 달린 괴물	적용			가을 산을 다녀와서	적용	
7	책과의 만남	편지글 2편	원리	독서감상문	아니 댄 글썽에 연기 날까	목숨보다 귀한	원리	전래동화
		윤호의 편지·신숙이의 편지	적용			재판놀이·귀여운	적용	
8	우리가 꾸미는 무대	소와 나귀	원리	극본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오나, 나간다	원리	설명문
		브레멘의 악사들	적용			연 날리기	적용	
9	도서관에 가 봅시다	대한 어린이...	원리	설명문	작은 생물의 세계	관충의 몸	원리	설명문
		책을 찾아서	적용			지렁이 관찰	적용	
10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화엄사를 찾아서	원리	기행문	올바른 판단	숲 속의 대장간	원리	극본
		부여를 다녀와서	적용			막동이	적용	
11	주장과 근거	친절한 사람	원리	논설문	날말의 뜻을 찾아서	-	원리	기록문
		교통 질서를 지키자	적용			다양한 날말의 뜻을	적용	
12	아름다운 우리 말	우물가에 나무 형제	원리	동시	위인들의 삶	소년 슈바이처의 싸	원리	전기문
		내 동생 외 1편	적용			한석봉과 어머니	적용	
13	본 대로 느낀 대로	-	원리	동화	보배 같은 말과 글	짜증난 날 외 1편	원리	동시
		까치 보름이	적용			운동장 외 1편	적용	
14	콩 심은 데 콩 나고	반대로만 하는 아이	원리	민담 전래동화	나보다 남을 높이는 삶	진정한 친구	원리	동화
		들기를 향아리	적용			세 가지 소원	적용	
15	민속놀이	웃놀이	원리	설명문	또 다른 내가 되어	현수의 하루	원리	극본
		그네와 씨름	적용			시험	적용	
16	아름다운 마음	다람쥐	원리	동화				
		작은 새의 꿈	적용					
17	함께 의논하기	아름다운 싸움	원리	생활문 회의 기록문				
		제17회 학급 어린이회	적용					

● 5 학년

1 학 기					2 학 기			
단원	단 원 명	계 재	학습 유형	장르별	단 원 명	계 재	학습 유형	장르별
1	내가 좋아하는 시	봄의 숨바꼭질 외 1편	원리	동시	잔잔히 살펴봅시다.	최무선	원리	전기문
		비는 이럴 때 오는 거야 외	적용			주시경	적용	
2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	행복	원리	수필 생활문	시인이 되어	산새	원리	동시
		내가 본 밤 하늘 봄의 길목에서	적용			발가락 외 1편	적용	
3	우리의 의견	어린이들의 식생활 말을 바르게 쓰자	원리 적용	논설문	알맞은 표현	무용총 수렴도 백제 토기 인물상의	원리 적용	설명문
4	따뜻한 마음	나무를 심는 사람 임금의 병	원리 적용	소설 동화	앞 뒤 내용을 생각하며	경주를 다녀와서 설악산을 오르며	원리 적용	기행문
5	어려운 것도 쉽게	세계 인종의 신체 특징	원리	설명문	경험과 상상	쪽	원리	동화
		통신의 발달	적용			느티나무	적용	
6	감동의 메아리	웃음총	원리	동화	너와 나의 만남	테레사 수녀와 ...	원리	일화 소설
		우리 집에 이사 온 아이	적용			할머니의 안경	적용	
7	관찰의 세계	곤충은 어디로 소리칩	원리	설명문 기록문	알맞은 근거 설득력 있는	나도 외교관	원리	논설문
		초파리의 세계	적용			우리들의 산	적용	
8	말과 글의 짜임새	책을 읽는 까닭	원리	논설문	우리 가락의 멋	타박네	원리	전래 동 요
		빛나는 조상의 얼	적용			고사리 노래 외 1편	적용	
9	생각들의 만남	난파선의 사람들	원리	극본	흥겨운 놀이마 당	어차피 죽을 몸이니	원리	극본 (각색)
		우리 선생님	적용			별주부전	적용	
10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안중근	원리	기행문	날말들의 관계	한 언어의 ..	원리	설명문
		김정호	적용			우리 나라 민속무용	적용	
11	글 속에 숨은 생각	배추 장수 아저씨	원리	소설	여러 가지 의 견	알뜰 바자회	원리	기록문
		5월의 선볼	적용			야구장에서 생긴 일	적용	
12	표현과 이해의 과정	광양 제철소를 찾아서	원리	견학 기록문	눈을 감아도 보여요	달래	원리	전래 동 화 동화
		남극 세종 기지를 ..	적용			오세암	적용	
13	아이들의 노래	전래동요	원리	설명문 전래동요	소중한 우리 말	상준이의 시험	원리	동화 논설문
		비 외 1편	적용			검은 바다 검은 새	적용	
14	아는 것이 힘이다	정수는...	원리	생활문 생활문 논설문	전해 오는 이 야기들	자린고비	원리	민담
		글 ①, ②, ③	적용			도둑을 회개시킨 삼	적용	
15	금싸라기를 찾아서	건강한 사람	원리	논설문 연설문	말과 글의 첫 머리	어머니와...	원리	생활문 동화본
		창조의 힘과 개척정신	적용			글 ①, ②	적용	
16	지혜의 샘	만년 서츠	원리	소설 전래동 화				
		양초 도깨비	적용					
17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하의 일기	원리	독서 감상문				
		성민이의 고민	적용					

● 6학년

1 학 기					2 학 기				
단원	단 원 명	계 계	학습 유형	장르별	단 원 명	계 계	학습 유형	장르별	
1	우리는 하나	말을 신중하게	원리	논설문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산	원리	수필	
		함께 사는 지혜	적용			있을 수 없는 아이의 외	적용	생활문수필	
2	고전의 향기	천지 속의 용궁	원리	전래동화	꿈을 가꾸는 동산	잔디 아버지의 노래	원리	동화	
		장끼전	적용	고대소설		마지막 줄타기	적용	소설	
3	발견하는 기쁨	철이의 공금중	원리	생활문	날말의 비밀	군자가 되려면	원리	논설문	
		나뭇잎채·플꽃	적용	수필		북한의 언어생활	적용	설명문	
4	역사 속의 인물	세종 대왕	원리	전기문	파란 하늘 높은 하늘	낙엽	원리	동시	
		남궁억 선생과 무궁화	적용			시를 잡아라 외 1편	적용		
5	의견을 모아 서	선의의 거짓말	원리	기록문	느낌과 표현	글①②③	원리	논설문	
		제5회 독서 토론회	적용			글①②③④⑤	적용	설명문 생활문	
6	노래하는 마음으로	말의 빛	원리	동시	떠다니는 이야기 타고	수달과 해룡 스님	원리	설화	
		이제는 그까짓 것 외 1편	적용			저승에 있는 공간	적용		
7	여행을 다녀와서	무령왕릉을 찾아서	원리	설명문 기행문	주장 속에 담긴 생각	화제의 원인과 예방	원리	논설문	
		불국사, 불국사를 찾아서	적용			세대 문화의 갈등	적용		
8	이야기 속으로	두 경험	원리	소설	말의 힘	안전선 안으로 돌아온 아이	원리	설명문 생활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적용			말의 힘	적용		
9	광고와 생활	쓰레기 등고선	원리	광고문	늘 푸른 나무처럼	백결선생	원리	전기문	
		광고와 생활	적용	설명문		간디	적용		
10	무대 위의 세계	세 사람	원리	극본	우리는 한 겨레	연변에...	원리	편지글	
		늘부진	적용	극본		한국의... 외 2편	적용		
11	더 나은 선택을 위하여	음식 문화	원리	논설문	아하, 그렇군	개	원리	설명문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적용			공룡은 어떻게...	적용		
12	주제를 생각하며	서동 이야기	원리	설화	전통 문화의 향기	북청 사자춤	원리	시	
		단군의 건국이야기	적용			고추장 외 1편	적용		
13	재미있는 우리말	날말의 짜임	원리	설명문	행동하는 삶	심청전	원리	극본	
		말에도 뼈가 있다. 외 1편	적용			어떤 크리스마스	적용		
14	선인들의 노래	시조는...	원리	설명문	상상 속의 인물	독재자의 실수	원리	소설	
		대산이 외 5편	적용	시조		연아, 높이 올라라	적용		
15	지구촌 이야기	강에는 신채적 특징	원리	기록문	더 큰 세계로	낮아진 철봉	원리	소설	
		건강한 대륙 아프리카	적용	설명문		마지막 수업	적용		
16	상상의 날개를 펴고	까치와 느티나무	원리	동화					
		왕거미와 산누에	적용						
17	주고받는 마음	성호에게	원리	편지글					
		선숙이의 첫째 번 편지 외 3편	적용						

### < 부록-3 > 학년별 극본 단원의 목표

학년	학기	단원명	제재	단원 목표
3	1	13. 내가 주인공	· 소년과 어머니	· 등장 인물의 말과 행동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극본을 읽을 수 있다.
	2	8. 이야기를 나누어요	· 방안에 가득 차는 것 · 쓴 약 단 약	· 등장 인물의 성격에 어울리게 극본을 읽을 수 있다. · 등장 인물의 성격을 알아보며 극본을 읽을 수 있다.
4	1	8. 우리가 꾸미는 무대	· 소와 나귀 · 브레멘의 악사들	· 등장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며 극본을 읽을 수 있다.
	2	10. 올바른 판단 15. 또 다른 내가 되어	· 숲 속의 대장간 · 막동이	· 등장 인물의 처한 상황에 맞게 극본을 어떤 말투로 읽어야 할지를 안다. · 글의 내용과 분위기에 어울리게 읽을 수 있다.
5	1	9. 생각들의 만남	· 난파선의 사람들 · 우리 선생님	· 등장 인물의 갈등을 생각하며 극본을 읽을 수 있다.
	2	9. 흥겨운 놀이 마당	· 어차피 죽을 몸이니 · 별주부전	· 사건의 전개 과정을 생각하며 극본을 읽을 수 있다.
6	1	10. 무대 위의 세계	· 세 사람 · 놀부전	· 어떤 갈등이 있는지 알아보며 극본을 읽을 수 있다.
	2	15. 행동하는 삶	· 심청전 · 어떤 크리스마스	· 중심이 되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알아보며 극본을 읽을 수 있다.

## < 부록-4> 학년별 극본 단원의 학습 내용

### ● 3학년

3	13. 내가 주인공	103~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의 내용 파악하기</li> <li>· 각 인물이 한 말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기</li> <li>· 등장 인물의 한 말이나 행동에 어울리게 글 읽기</li> </ul>
4		106~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장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을 생각하며 글 읽기</li> <li>· 글의 줄거리 간추리기</li> </ul>
5		106~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장 인물의 성격 알기</li> <li>· 역할을 정하여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글 읽기</li> </ul>
3	8. 이야기를 나누어요	6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장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성격 파악하기</li> <li>· 등장 인물의 성격에 어울리게 극본 읽기</li> </ul>
4		64~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본을 읽고, 등장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li> <li>· 극본을 읽고, 대강의 내용 알기</li> </ul>
5		64~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본을 읽고, 등장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li> <li>· 배역을 정하여, 등장 인물의 성격에 어울리게 극본 읽기</li> </ul>

### ● 4학년

3	8. 우리가 꾸미는 무대	59~68	· 말과 행동을 통해 등장 인물의 성격 알아보기
4		62~68	· 등장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며 극본 읽기
3	10. 올바른 판단	8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을 읽고 인물의 마음 알기</li> <li>·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소리내어 읽기</li> </ul>
4		84~90	· 방송극본을 실감나게 읽어 보기
3	15. 또 다른 내가 되어	123~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본을 읽고, 내용 파악하기</li> <li>· 배역 정하여, 실감나게 읽기</li> </ul>
4		126~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본을 읽고 내용파악하기</li> <li>· 내용과 분위기에 어울리게 극본 읽기</li> </ul>

● 5학년

4	9. 생각들의 만남	85~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본의 내용 파악하기</li> <li>·인물이 겪는 갈등 상황을 알기</li> <li>·배역 정하고 극본 읽기</li> </ul>
5		88~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본 읽기</li> <li>·극본의 내용 파악하기</li> <li>·갈등 상황 파악하기</li> </ul>
6		88~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알기</li> <li>·배역 정하여 극본 낭독하기</li> </ul>
4	9. 흥겨운 놀이 마당	8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본 읽고, 내용 파악하기</li> <li>·사건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li> <li>·느낀 점 알아보기</li> </ul>
5		8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본의 구성 살펴보기</li> <li>·극본 읽기</li> <li>·사건의 전개 과정 알아보기</li> </ul>
6		8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파악하기</li> <li>·사건의 전개 과정 정리하기</li> </ul>



● 6학년

4	10. 무대 위의 세계	101~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물들의 성격과 인물 사이의 갈등 파악하기</li> <li>·극본에 나타나는 갈등에 대하여 알기</li> </ul>
5		104~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본 읽고, 내용 파악하기</li> <li>·극본의 전개 방식 알아보기</li> </ul>
6		104~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본에 나타난 갈등과 그 해결 방식 파악하기</li> <li>·배역을 정하여 극본 읽기</li> <li>·연극으로 꾸미기</li> </ul>
4	13. 행동하는 삶	131~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본을 읽고,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중심이 되는 갈등 알아보기</li> <li>·갈등의 해결 과정을 상상하여 말하기</li> </ul>
5		134~1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본 읽고, 내용 파악하기</li> <li>·등장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li> </ul>
6		134~1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본에 나타난 중심 갈등과 해결 과정 알아보기</li> <li>·배역을 정하여 극본 읽기</li> <li>·연극으로 꾸미기</li> </ul>



<부록-5> 교육 과정 변경에 따른 회곡 수록 목록

학년	학기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	4차 교육과정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1	1				• 토끼와 거북	• 토끼와 거북	
	2						
2	1				• 금도끼	• 금도끼	
	2						
3	1				• 토끼의 재판	• 토끼의 재판	• 소년과 어머니
	2		• 외다리 거위	• 외다리 거위	• 청개구리	• 외다리 거위	• 쓴 약 단 약
4	1	• 걸레	• 걸레	• 석수장이	• 석수장이	• 석수장이	• 브레멘의 악사들
	2				• 숲속의 대장간	• 숲속의 대장간	• 막둥이 시험
5	1	• 꽃과 나비		• 숲속의 대장간	• 새로 나온 달님	• 우리 선생님	• 우리 선생님
	2		• 새로 나온 달님	• 새로 나온 달님	• 날지 못 하는 백조	• 월광곡	• 별주부전
6	1	• 봄이 오면			• 섬마을의 전설		• 놀부전
	2			• 크리스마 스 송가	• 크리스마 스 송가	• 크리스마 스 송가	• 어떤 크리스 마스
합계		3	4	5	10	9	9

## <부록-6> 설문지

### ● 아동용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의 물음들은 시험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국어 공부를 보다 더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설문 조사로 여러분의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학생의 성별은 ? < > 1) 남학생 2) 여학생

1. 국어과 학습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

- 1) 동시(시) 2) 동화 3) 극본 4) 생활문관 5) 기타

2. 위 1번 물음에서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이유를 써주세요.

3. ‘극본’은 무엇을 위한 글이며, ‘극본’이 동시나 동화와 다른 점을 알고 있나요? < >

- 1) 잘 알고 있다.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 잘 모른다

4. 학생은 실제 국어 시간에 극본학습을 할 때 연극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1) 꼭 했으면 좋겠다. 2)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3)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5. 위 4번에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써 보세요.

6. 학생은 국어 시간에 극본 학습을 할 때 연극을 한다면 배우로 출연하겠습니까?----- < >

- 1) 꼭 출연하고 싶다.
- 2) 상황에 따라 출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3) 출연하지 않겠다.

7. 위 5번에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써 보세요

8. 학생은 지금까지 했던 극본학습에서 연극에 몇 번 정도 출연해 보았나요? < >

- 1) 세 번 이상 있다.
- 2) 한두 번 있다.
- 3) 전혀 없다

9. 극본 학습에서 연극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 1) 대사 외우기
- 2) 동작 익히기
- 3) 의상이나 소품 준비하기
- 4) 무대 꾸미기

10. 만약에 클럽활동 부서로 다음과 같은 부서가 생긴다면 어느 부서에 참가하고 싶습니까? -----< >

- 1) 합창부
- 2) 무용부
- 3) 그림부
- 4) 연극부

11. 자기가 집에 갖고 있는 도서는 총 몇 권 정도 있으며, 그 중에서 극본은 몇 권 정도 있나요? ( )안에 숫자로 써 주세요.

\* 도서는 총 ( ) 권 정도 있다.

\* 그 중에 극본과 관계 있는 책은 ( ) 권 정도 있다.

●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용

이 설문지는 선생님들께서 국어과 극본 단원의 학습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선생님의 성별은? (        )                    1) 남                                    2) 여
2. 선생님께서 맡고 있는 학년은 몇 학년입니까? (                    ) 학년
  
3. 선생님의 교육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1) 10년 이하                                    2) 10년 이상~20년 이하  
3) 21년 이상 ~ 30년 이하                4) 31년 이상
  
4. 다음의 예술 분야 중에서 실제 감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것을 관람하고 싶습니까?  
1) 미술·서예전                                2) 음악회                                3) 연극                                    4) 무용
  
5. 다음의 문학 장르 중 가장 선생님이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1) 시    2) 소설                                    3) 희곡                                    4) 수필
  
6. 선생님께서 다음의 문학 장르 중 가장 자신 있게 지도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1) 시(동시)                                    2) 동화(아동소설)                    3) 극본                                    4) 기타
  
7. 국어 교과에서 극본 단원의 수록 정도를 양적인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교육 과정은 3~6학년에 매 학기 1단원씩 수록됨)  
1) 부족하다                                    2) 알맞다                                    3) 많다
  
8. 선생님께서는 극본 단원 학습에서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계십니까?

- 1) 극본의 개념·본질                      2) 스토리 전개 과정 이해
- 3) 주제와 교훈                            4) 연극 공연

9. 선생님께서는 극본 단원의 학습에서 연극을 어느 정도 지도하고 계십니까?

- 1) 거의 하지 않는다                      2) 가끔 하는 편이다.                      3) 꼭 하는 편이다.

10. 아동들이 극본을 이해·감상하는 데, 연극 공연의 필요성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불필요하다                              2) 그저 그렇다                              3) 반드시 필요하다

11. 극본 단원의 학습에서 연극을 지도할 때 가장 어려움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1) 교육 과정상의 시간 부족    2) 아동들의 호응도 부족
- 3) 의상과 소품 준비 등 비용문제    4) 지도 능력의 부족
- 5) 기타



12. 극본 단원의 학습에서 아동들이 연극을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써 주세요)

13. 선생님께서는 교직 생활 중 연극을 몇 번 정도 지도해 보셨습니까?

- 1) 전혀 없다                      2) 1~2회                      3) 3~4                      4) 5번 이상

14. 선생님께서는 최근 10여년 동안에 전문극단이 공연하는 연극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 1) 없다    2) 있다

\* 있다면 몇 번 정도 보았습니까? (                      ) 번 정도

15. 선생님의 교실에 있는 것에 ○표 해주십시오.

- 1) 대형TV      2) VTR              3) OHP              4) 녹음기  
 5) 프로캠      6) 실물화상기      7) 음판              8) 자석철판

16. 선생님의 교실에는 학급 문고가 총 몇 권 정도 있으며, 그 중에 회곡은 몇 권 있습니까?

\* 학급 문고 총 (              )권 정도      \* 극본 (              )권

17. 극본 단원의 지도를 위해서 노력할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생각을 소신껏 써 주세요: 교육과정 면, 환경적인 면, 학습 방법 면, 기타 등)

● 정성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7> 설문지 분석

### ● 아동에 대한 분석 자료

#### <설문지 분석표 >

N=136명

반응 문항별	1)		2)		3)		4)		5)	
	N	%	N	%	N	%	N	%	N	%
1	19	13.9	36	26.5	64	47.1	13	9.6	4	2.9
2	-	-	-	-	-	-	-	-	-	-
3	39	28.7	86	63.2	11	8.1	-	-	-	-
4	106	77.9	22	16.2	8	5.9	-	-	-	-
5	-	-	-	-	-	-	-	-	-	-
6	55	40.4	74	54.4	7	5.2	-	-	-	-
7	-	-	-	-	-	-	-	-	-	-
8	45	33.1	58	42.7	21	15.4	12	8.9	-	-
9	57	41.9	24	17.7	42	30.9	13	9.6	-	-
10	19	13.9	8	5.9	45	33.1	64	47.1	-	-
11	-	-	-	-	-	-	-	-	-	-

#### <설문지 11번 문항 분석 표 : 아동의 극본 보유 실태>

N=136명

구 분	도서 보유 실태		극본 보유 실태		비 고
	총 도서 수	1인 평균	총 극본 수	1인 평균	
자료 수(권)	15,939	117.2	128	0.94	

\* 극본이 한 권도 없는 아동 61 명

#### ◎ 설문지 2번 문항 : 국어과 학습에서 좋아하는 분야와 그 이유<sup>62)</sup>

62) 설문지 분석 부분에서 기술을 요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문장 서술 방식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내용이 비슷한 것들은 통합하였다.

### 1) 동시를 좋아하는 이유(19)

- 시는 운율과 리듬이 있어서 외우기도 쉽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재미있다. (6)
- 시를 읽으면 장면이 떠오르고 지은이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4)
- 시를 통하여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4)
- 시에 나타난 말들이 재미있고 동시와 관련된 그림들이 좋아서 (3)
- 산문보다는 동시를 짓는 데 소질이 있으므로(2)

### 2) 동화를 좋아하는 이유 (36)

- 동화를 읽으면 재미있고 마음이 즐겁다. (16)
- 동화를 통해 감명을 받을 수 있고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6)
- 동화 속에서 훌륭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 (5)
- 친구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면서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다. (3)
- 동화를 읽으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도 체험할 수 있다. (2)
- 동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2)
- 기타 (2)

### 3) 극본을 좋아하는 이유(64)

- 무대에서 연극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활동적이고 재미있어서 좋다. (30)
- 친구들과 어울려 하기 때문에 더욱 서로 친해지고 협동심이 생기기 때문에 좋다. (14)
- 직접 연기를 해 봄으로써 등장 인물의 성격은 물론 친구의 성격까지도 알 수 있다. (9)
- 극본의 전개 과정을 알 수 있고 극본 속에 인물이 한 일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다. (5)
- 극본은 대화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숙한 느낌이 들고 지루하지 않아서 좋다. (2)
- 기타 (4)

- 
- ( ) 안의 숫자는 응답 수를 의미한다.
  - 응답 수가 높은 항목부터 제시하였다.



#### 4) 생활문을 좋아하는 이유 (13)

- 생활문에는 우리 생활에 흔히 있는 일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친근감이 들어서 좋다. (8)
- 생활문을 읽으면서 교훈을 얻게 되고 자신의 나쁜 행동을 반성할 수 있어서 (3)
- 다른 글에 비해 내용을 이해가 쉽고 글짓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 (2)

#### 5) 기타

##### · 논설문을 좋아하는 이유 (3)

- 자료 조사를 하는 것이 흥미가 있기 때문이다. (1)
-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로서 자기가 마음 속에 있는 주장들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1)
- 논술과 평소에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주장을 펼칠 수 있으므로 (1)

##### · 설명문을 좋아하는 이유 (1)

- 설명문을 읽어보면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과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 ◎ 설문지 5번 문항 : 극본학습을 할 때 연극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 1) 꼭 했으면 좋겠다 (111)

- 연극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43)
- 연극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고 협동심과 단결력을 기를 수 있다. (12)
- 연극을 하면 극본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 (11)
- 연극을 하면 실감이 나고 자신감도 생긴다. (8)
- 자신의 감정이 풍부해지고 말을 더 잘 할 수 있다. (5)
- 작품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4)
- 등장 인물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서 (4)

- 자신의 연기 실력을 자랑할 수 있고 소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3)
- 극본이 있으면 당연히 연극을 해보아야 한다. (2)
- 기타 (19)

## 2)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22)

- 연극을 연습하려면 시간이 없다. (7)
- 무대 꾸미기도 복잡하고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다. (5)
- 극본에 별로 관심이 없기 없다. (5)
- 이론으로 공부해도 극본을 이해할 수 있다. (2)
- 기타 (3)

## 3)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8)

- 연극에 관심이 적어서 (3)
- 실수하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2)
- 연극을 하려면 복잡하고 연습도 많이 해야 하는 데 시간이 없어서 (2)
- 연극을 하는 것이 귀찮아서 (1)

## ◎ 설문지 7번 항목 : 연극을 한다면 배우로 출연 하겠나요?

### 1) 꼭 출연하고 싶다는 이유 (55)

- 연극이 좋고 재미있다. (16)
- 연극 속의 주인공이나 등장 인물 되어 보고 싶어서 (11)
- 연극에 소질이 있다. (9)
- 연극을 통해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5)
- 극본을 잘 이해할 수 있다. (4)
- 기타 (10)

### 2) 상황에 따라 출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유 (74)

- 나에게 주어진 배역이 맞아야 출연하겠다. (24)

- 극본이 재미있을 때만 출연하겠다. (17)
- 출연하고는 싶지만 지원자가 많으면 양보해야 하기 때문 (15)
- 구경하는 것이 출연하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으므로 (10)
-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5)
- 기타 (13)

**3) 출연하지 않겠다(7)**

- 연극을 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줍음을 잘 타서 (2)
- 연극에 소질이 없기 때문에 (1)
- 연극을 하려면 연습 시간이 필요한데 학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1)
- 연극을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좋아서 (1)
- 기타 (2)



● 교사에 대한 분석 자료

<설문지 분석표 >

N=65명

반응 문항별	1)		2)		3)		4)		5)	
	N	%	N	%	N	%	N	%	N	%
3	22	33.9	26	40.0	12	18.5	5	7.7		
4	11	16.9	20	30.8	28	43.1	6	9.2		
5	13	20.0	25	38.5	11	16.9	16	24.6		
6	15	23.1	21	32.3	13	20.0	16	24.6		
7	17	26.2	45	69.2	3	4.6	-	-		
8	4	6.2	18	27.7	26	40.0	17	26.2		
9	6	9.2	32	49.2	27	41.5	-	-		
10	2	3.1	12	18.5	51	78.5	-	-		
11	37	56.9	-	-	16	24.6	10	15.3	2	3.1
12										
13	18	27.7	24	36.9	12	18.5	11	16.9		
14	22	33.9	43	66.1						
15										
16										
17										

<설문지 14번 : 최근 10년 동안 연구 관람 회수>

N=65명

관람회수 반응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합계
N	22	9	18	7	4	5	65
%	33.9	13.8	27.6	10.8	6.2	7.7	100.0

<설문지 15번 : 학급별 시청각 자료 보유 실태>

N=65학급

자료 보유	대형TV	VTR	OHP	녹음기	프로캠	실물화상기	음판	자석철판	기타
N	24	65	65	65	37	15	17	50	-
%	36.9	100.0	100.0	100.0	56.9	23.1	26.1	76.9	-

<설문지 16번 : 학급 문고 와 극본 보유 실태>

N=65학급

구 분	학급 문고 실태		극본 보유 실태	
	총 도서 보유 수	학급당 도서 보유 수	총 극본 보유 수	학급당 극본 보유 수
자료 수(권)	15,939	117.2	57	0.8

<설문지 16번 관련 : 극본 보유 수에 따른 학급 실태>

N=65학급

구 분	0 권	1 권	2권	3권	4권	합계
학급 수	41	7	5	8	4	65
%	63.1	10.8	7.7	12.3	6.1	100.0

· 극본이 전혀 없는 학급 41학급.

◎ 설문지 12 번 항목 : 연극 상연의 교육적인 효과 대한 견해 (49)

- 극중 인물이 되어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작품의 줄거리· 전개 과정· 인물의 성격· 갈등과 해결 과정· 주제· 교훈 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14)
- 연극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창의력이 길러짐은 물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어 양보와 타협의 태도가 길러지는 등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 (12)
- 발표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무대 매너를 익히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등 표현력 신장과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 (8)
- 무대 위에 섰던 경험은 아동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게 되고 이를 계기로 적극적이면서도 실천 지향적인 삶의 자세를 지닌 인간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7)
- 그룹별 연극 활동을 통해 상호 비교 평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문자를 통한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공부가 될 것이다. (4)
- 기타 (4)

◎ 설문지 17 번 항목 : 극본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의견 (34)

- 극본이 다른 장르에 비해 양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연극을 실연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10)
- 교사용 지도서에 연극 지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고 새롭게 창작된 작품을 수록해야 한다. (8)
- 연극 연출이나 이론을 배울 수 있는 연수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5)
- 연극을 단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작품이 있어야 하고 영상 자료, 오디오 자료, 도서 등 연극을 위한 자료도 충분해야 한다. (5)
- 간이 무대와 조명 시설 등이 갖추어진 특별실이 있어야 하고 교사의 잡무가 경감되어 아동 지도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 (3)
- 기타 (3)